연못골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연못골 제 624호

12-1

새 영을 주시리라

(겔 11:14-21)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반칠환의 인터넷 시선집 〈새해 첫 기적〉 (지혜, 2014)에 수록된 '새해 첫 기적'.



CONTENTS

2025년 12 - 2026년 1월호

04 위임목사 신년사 **하나님이 계획하신 2026년의 나** 김주용 위임목사

06 원로목사 신년사 **새해에는 희망이 현실이 되는 꿈의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성희 원로목사

08 2026년 목회지침

11 2026년 교역자 직능 분담표

12 2026년 연동교회 행사 계획

14 신년특집인터뷰 - 김주용 위임목사 **쉼을 지나 '목회 2기'의 출발선에서**

18 은퇴, 추대, 임직 예식 **은퇴, 추대, 임직, 감사합니다!**

연못골 광장

22 1018예수사랑 **따라 불렀던 이름이, 나의 고백으로** 고서현 성도(HI청년부)

23 2030새벽이슬 **매듭** 윤현종 성도(HI청년부)

24 살며생각하며 **말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 묻고 듣는 신앙** 한성호 성도(쌍문구역)

궁금해요 Q&A(1)

26 겨울철 건강관리 **겨울철에 혈관건강 지키기** 노환규 안수집사(화양자양구역, 하트웰의원 원장)

청년광장

28 HI청년부 **영육의 조화 속에 강건해지는 청년부**

30 HI청년들 이야기 **2026년 HI 청년공동체를 이끌어갈 회장단을 소개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31 칭찬합니다!(18) **HI 청년공동체 성경통독 채팅방을 칭찬합니다!**

32 믿음의 스포츠인(1) **그라운드가 하나님의 선교지인 '이영표 선수'** 오한빛 목사

34 소그룹 탐방(6) **"악기는 작고 울림은 큰, "하기폰 오카리나"**

36 연동북하우스(23)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삶의 퍼즐을 맞추는 믿음의 여정**

37 교회홍보(도서/영상) **〈담대하게 거침없이〉 교회 홍보 책자와 홍보 영상 제작**

선교

38 선교지에서 온 편지 **어둠 속에서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 쿠바 선교 소식** 이범찬 선교사
40 중국어예배반 **2026년 중국어예배반 사역 방향**
41 필리핀예배공동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긴 WIN-서울교회 성탄 나눔**

청소년주일학교 소식

42 청소년주일학교

연못골 사람들

50 왓두유뽀리빙(6) **순간을 담고, 시간을 요리하는 "김현철 집사"**
52 HI연동청년, 창업/직업도전기(21) **방송작가 박예송 청년**
54 새신자 어게인(24) **"여기는 저희에게 집 같은 곳이에요."**
연동교회에서 믿음을 키워가는 정지훈, 김보림 성도 부부
56 신임목사 인터뷰 **"박주안 목사님, 반갑습니다!"**
58 신임 전도사 인사
59 고별 인사
60 2026년도 연동교회 장학생 모집
62 2026년 자치기관 임원 명단
64 지체들
76 교회 첫 출석 아기
77 연동복지재단
78 신협 현황, 목양위원회
79 연동컬러링

제목 : 기쁨의 새해
재료: 사진에 AI(Gemini + ChatGPT)
제작일: 2026년 1월 13일(화)
그림 내용: 12월 21일(주일) 온세대 성탄축하예배 성탄발표회 때 선보였던 중등부 찬양율동팀의 활기찬 율동 사진에 AI를 활용해 재구성한 이미지입니다. 새해, 새 영을 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제작자: 연못골 편집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2026년의 나

전조를 읽은 한 사람의 예언

2016년 다큐멘터리 영화 “볼링 포 콜럼바인 (Bowling For Columbine)” “화씨 9/11 (Fahrenheit 9/11)” “트럼프 랜드의 마이클 무어 (Michael Moore in Trump Land)” 등으로 유명한 마이클 무어(Michael F. Moore) 감독은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예언하였다. 그는 5가지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했다. 첫 번째는 미시건 주를 비롯해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의 4개 주에 사는, 자기 출세만 바라고 말로만 가난한 자와 약자를 대변한다고 했던 진보주의자들에게 분노와 적의를 품은 노동자들이 민주당을 등지는 표를 던질 것이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 민주당 후보로 여성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을 원하지 않은 분노한 백인 남성들의 저항이 표로 표출될 것이라고 예언했었다. 또한 세 번째로 구식 정치의 표상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반감과, 네 번째는 투표 독려를 하지 않은 의욕을 잃은 급진 좌파 지지자들의 사표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제시 벤투라 효과(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미네소타 주에 은퇴한 프로 레슬러 제시 벤투라가 주지사로 뽑혔던 사건-미국의 병든 정치 시스템을 비꼬는 것)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마이클 무어는 예상했었다.

그의 예측은 정확했고, 그의 말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마이클 무어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어떤 일에 대한 전조(前兆)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미래의 사건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거부할 수 없이 인식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전조라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미리 판단하고 대비하여 준비하게 한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미래를 준비하는 시선

2026년을 맞이하고 한 달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새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오시는 하나님을 항상 소망하는 자들로서, 내일의 일들을 예언하고 준비하며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는 내일을 준비하는 분이었다. 영적인 전조를 깨닫고 다음 스텝에 있을 것들을 예비하면서



김주용 위임목사

하늘의 뜻을 성취해 갔었다. 그는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눅 21:29-31)고 증거했다. 이처럼 예수는 자신의 수난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 시기는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오고 낙엽이 지면 겨울이 오는 줄 아는 것처럼, 그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했다. 특별히 예수는 무화과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를 보아도 그런 일을 알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 비유는 곧 특정한 사건만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그 전조와 징후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예수의 말처럼, 우리는 내일과 미래의 일에 전조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을 예민하게 느끼지 못할 뿐이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징조가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결코 예측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단지 우리는 그 징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숨겨진 낌새를 눈치채지 못할 뿐이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E. H. Carr)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다. 역사는 과거에서 던져진 질문에 현재가 응답하면서 쓰여진다. 곧 미래는 과거로부터 시작되어 현재를 지나 내일의 역사와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는 진공 속에서 창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2026년, 우리의 무화과나무 살피기

2026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과거에 얻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며 다시 채우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도는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미리 알고자 주께 묻고 아뢰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일에는 전조가 있음을 깨달어야 한다. 수많은 예측과 가설, 주장이 쏟아지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기민한 눈과 귀를 가져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분별력 있게 읽는 자들이 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질 2026년의 무화과나무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2026년의 당신이 있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희망이 현실이 되는 꿈의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새해, 위기 속에서 다시 발견하는 하나님의 기회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연동의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급속 성장은 급속 쇠퇴를 가지고 온다는 속설이 비켜 가기를 기대했지만 한국교회에 꽂혀 교회가 길을 헤매고 있는 듯합니다. 교회 수도, 교인 수도 쇠퇴하고 있고,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또 다른 기회인지 모릅니다. 문제를 문제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문제를 문제로 알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는 희망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을 맞았을 때 어제 아침과 현상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 교회도 가정도 새 삶의 희망을 쌓게 됩니다. 인간은 희망하는 동물입니다. 인간을 정의하는 학명이 많은 가운데 '희망하는 인간'(homo esperans)이라는 학명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인간을 정의하면서 '희망하는 인간'이라 불렀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책 '죽음에 이르는 병'의 제2편에는 '절망은 죄이다'라고 단정합니다. 절망(絶望)이란 희망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절망이 죄인 것은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끊고 거절하기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논 시네 솔레 이리스'(non sine sole iris)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 없는 무지개는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요란한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비는 그칩니다. 그리고 비 없는 무지개도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영성시대를 사는 교회의 힘

21세기는 영성의 세기입니다. 최첨단과학 시대가 영성시대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역설 같지만 상당히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AI 시대의 최첨단과학은 절대로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최첨단과학과 함께 살게 되면 그것을 초월하는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앙드레 말로는 "21



이성희 원로목사

세기는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포스트모던인들은 반종교적이면서도 상당히 영적입니다. 이 시대는 누구나 생명을 얻는 영성이든 아니면 생명 파괴적 영성이든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영성은 좋은 것이지만 상당히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서구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수는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영성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양산하고 반면에 영성에 대한 관심도 극대화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지혜는 건강한 영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성을 얻는 길을 기도와 말씀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강림을 체험하였습니다. 교회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희망이 사라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것이 영성시대를 살며,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붉은 말의 해,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2026년

2026년은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입니다. '병'(丙)은 불의 기운을 상징하고, '오'(午)는 말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은 왕의 군대와 관련된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렘 8:16, 50:11). 왕의 병거에 말이 등장하며, 왕의 위엄과 권력을 나타냅니다. 말은 주로 힘, 속도, 권위, 전쟁, 왕의 상징으로 등장하며, 말의 실제적 의미와 함께 상징적 의미로 나타납니다. 불의 기운을 가진 말의 해를 맞이하여 활력이 넘치며 앞을 향하여 도전과 용기가 넘치는 해가 되기를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영성시대의 곧게 뻗은 길을 힘과 위엄을 가진 말과 같이 힘차게 달리는 한 해가 되어 희망이 현실이 되는 꿈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친히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끝까지 함께 달리실 것입니다. .

주제 '새 영을 주시리라'

주제성경: 겔 11:14~21



목적문: 2025년 여름에 우리나라에는 태풍이 하나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인 영향은 받은 적은 있었지만 직접 우리나라를 스쳐 지나가거나 관통하여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16년 만에 "태풍 없는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합니다. 태풍이 지나가지 않아서 자연재해 피해가 없어서 좋았다고 하고 과수원을 하는 농장에서는 낙과 피해가 전보다 적어 과일 상품이 좋다고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지나가지 않았을 때에 발생하는 역기능과 좋지 않은 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태풍이 지나가지 않으면, 플랑크톤의 부족과 저염분수의 과밀도 현상으로 바다의 생태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담수인 강물이 가뭄으로 적조 또는 녹조 현상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실제로 태풍밖에 없는데 태풍이 오지 않으면 큰 피해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태풍이 오면 자연 재해를 입지 않고 농사도 잘 될 수 있지만, 여름에 몇 번은 태풍이 찾아와야 세상이 리셋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자연 환경의 극적 순환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은 필요합니다.

2026년에 연동교회의 한 해 비전은 '새 영을 주시리라'(겔 11:14~21)입니다. 여기서 '새 영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안의 문제 몇 가지를 수정하고 교정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11장 18절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리라"는 말씀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제하여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태풍이 와야만 우리 심령의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신앙의 삶이 채워지게 된다고 증거합니다(겔 11:19).

그런데 에스겔 11장 13절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동안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댜가 죽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블라댜'는 이스라엘 고관입니다(겔 11:1). 이름의 뜻도 히브리어로 '팔라트, 곧 하나님의 구원으로 살아남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이 되도록 만든 부정부패로 가득하고 악하고 죄가 가득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죽게 되었다고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마저 완전히 없애 버리려고 하십니까?"(겔 11:13)라고 묻는 것입니다. 물론 블라댜가 나쁜 고관이기는 하지만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생명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마저 심판하고 죽게 내버려 두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를 끝내 버리시고 끝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하나님은 유다를 멸절하려고 하셨습니다(렘 25:9-11).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완전히 멸절되고 쓰러져 회복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로 나가는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시고,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곧 영적인 태풍을 허락하시어 완전히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3가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 목표

(1) 먼저, 새로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겔 11:14, 21)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그분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따라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여야 하고 그 말씀으로만 변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던 계기는 '말씀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인생을 바꾸고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역사를 보였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고 그때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 주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2) 또한, 하나님은 흩으시고 다시 모아 새로운 땅을 주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에스겔 11장 17절에서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졌던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이들을 다시 불러 모아, 새로운 땅과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과 죄악 때문에 발생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해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율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고 죄를 고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니, 하나님은 다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불러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셨으나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새 영으로 인해 새로운 부흥이 이뤄질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겔 11:19)

새 영이 부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물은 깨끗해지고 땅은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때 물과 땅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에 가장 큰 근심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나 남북 대치 상황의 불안, 정치적 양극단의 갈등이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저출산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니, 끝내 인구는 줄게 될 것이고 고령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제조업에서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조도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연약한 아이들이 줄어드니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보기에 나약하고 연약한 주일학교 아이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새 영이 부어져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어린이를 불러 모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실천사항

(1) 말씀 & 양육

새 영을 주시는 2026년의 말씀과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은 (1) 더욱 심화된 데바레카 성경통독 팀을 통해 전교인의 말씀 훈련과 말씀읽기에 발맞춘 YBS성경공부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2) 우리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적 인재를 양육하기 위해 다양한 리더십 훈련을 실시하며 (3) 새가족부의 양육프로그램을 통해 말씀으로 교회에 정착하는 새신자들을 날로 확장해 나아가도록 만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2) 교육 & 차세대

새 영을 주시는 2026년의 교육과 차세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은 (1) 미래세대부와 5교구의 씽씽구역들이 하이브리드의 양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젊은 세대의 구역은 첫번째 자녀 나이에 맞춰 구성하고 그 구역 안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유다비 성경공부로 가정에서부터 영성훈련을 진행하며 (2) 3040세대를 위한 씽씽 교구를 5교구로 따로 편성하여 선택과 집중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3) 작년 교회 창립 131주년으로 시작했던 연동교회의 역사를 담아낸 청소년주일학교 교육교재를 계속해서 사용하여 미래세대를 교육함으로 연동의 역사 세우기를 지속적으로 지켜갈 것입니다.

(3) 예배 & 전도

새 영을 주시는 2026년의 예배와 전도에 대한 실천사항은 (1) 전통 예배(1부와 2부)와 현대의 열린 예배(3부와 4부)를 유지하며 예배를 통해 성례전의 전통성과 역동성을 지켜내고 (2) 올해 새롭게 만든 홍보 영상과 책자, 새롭게 개편되는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적극적인 전도사역의 도모를 이뤄가고자 합니다. 또한 (3) 쪽방촌 '러브릿지온' 사역으로 교회 주변 지역사회의 가난한 이들을 돕고, 더불어 교회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는 여러 회사와 기관과의 관계를 직장인 예배와 새참콘서트, 샌드위치콘서트 등으로 세상과 천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4) 신앙 & 신학

새 영을 주시는 2026년의 신앙과 신학에 대한 올바른 실천사항은 (1) 여러 YD페스타(찬양집회, 경제교실, 게임대회 등)를 준비하여 복음의 역동성을 찾아가며 (2) 그린 처치를 추구하는 우리교회의 비전대로 '환경선교사 과정'으로 많은 친환경적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고 세상 문화와 복음을 연결하는 문화선교의 사역에 대한 신앙과 신학의 커리큘럼을 실행하여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새로운 성령의 역할을 보여줄 것입니다.

(5) 교제 & 영성

새 영을 주시는 2026년의 교제와 영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은 (1) 계속적인 소그룹 지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그룹의 생성과 공동체 영성을 지원하며 (2) 영성금식수련회와 중보철야기도회, EPS 삶&신앙 소그룹 등을 통해 일상 속 영성을 고취시키며 (3) 교회 어르신들의 영성과 신앙을 위해 실버아카데미와 은퇴자 그룹에 대한 사역과 목양을 어느 해보다 더욱 관심을 갖고 도우며 온세대를 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6) 선교 & 구제

새 영을 주시는 2026년의 선교와 구제에 대한 실천사항은 (1) 다문화 예배 공동체인 중국어예배반과 필리핀예배공동체와의 선교적 협력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며 (2) 성도들의 자치회 모임을 적극 후원하여 평신도 중심의 사역과 목양이 활발히 이뤄지게 만들 것입니다. (3) 또한 연동복지재단을 통해서 지역마을 살리기와 구제운동에 성도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도우며 교회와 연계된 사역으로 정착되도록 할 것이며 (4) 하이청년부는 '배낭메고 선교가기'를 실행하여 소그룹 단기선교를 진행하며, 세계선교위원회 중심으로 떠나는 중남미 선교비전트립은 더욱 넓은 곳까지 선교의 역량을 확대하는 연동교회의 복음사역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2026년 교역자 직능 분담표

일정	지역관리	예배와 예전	교 육	제직부서	지도부서
김주용	위임목사 전체지역 상담 및 심방	성례 집전 주일예배설교와 인도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결혼식 장례 집례	교구 구역지도자 성경공부 교구 전체 모임 권사 성경공부	당회 & 제직회 교역자회 사무처 등	각 위원회 목양위원회 권사회/여전도회 대외관계업무 복지재단
계대윤	**(선임)**부목사 **2교구** 상담 및 심방	예배인도와 안내 주일오후예배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교구 장례 집례	교구 구역지도자성경공부 교구 전체 모임 YBS	예배부 총무부 재정부 상례부 평신도교육부	목양위원회 (이단대책위 기독교가치관교육팀) 세계선교위원회 입교세례교육 2남녀선교회
오한빛	부목사 **5교구** 상담 및 심방	예배인도와 안내 주일오후예배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교구 장례 집례	교구 구역지도자성경공부 교구 전체 모임 YBS	미래세대부 친교부	복지재단 4남녀선교회
김 환	부목사 **1교구** 상담 및 심방	예배인도와 안내 주일오후예배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교구 장례 집례	교구 구역지도자성경공부 교구 전체 모임 YBS	문화선교부 새가족부	일대일제자훈련 방송실 (디자인 및 미디어) 1남녀선교회
이진우	부목사 **4교구** 상담 및 심방	예배인도와 안내 주일오후예배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교구 장례 집례	교구 구역지도자성경공부 교구 전체 모임 YBS	음악찬양부 영성훈련부	3남녀선교회 중보기도팀(목양위) 세계선교위원회
이건희	부목사 **3교구** 상담 및 심방 **목회협력**	예배인도와 안내 주일오후예배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교구 장례 집례	교구 구역지도자성경공부 교구 전체 모임 YBS	국내선교부	다문화선교팀 전도활동팀 직장인선교팀
박주안	부목사 **청년부 총괄** 상담 및 심방	주일 4부 예배 수요기도회 청년 장례 집례 새벽기도회	청년리더성경공부 YBS(장년 및 청년)	사회봉사부	청년부 총괄 및 1부 장년부 은퇴권사회
이현주	지도목사				찬양선교단 (수요/3부/ 주일오후 찬양인도)
이성은	음악목사				게일찬양대 지휘
박점분	지도목사		성경통신강좌		중국어예배반 실버아카데미
전소망	준전임전도사 **미래세대부**		고등부		미래세대부 지원
조승연	준전임전도사		영아부		5교구 해피3구역

2026년 연동교회 행사 계획

월	주	일		예배	주간행사	주요 회의
1월	1	4	주현절 (6일)	신년주일,성례주일(입교, 세례식)	신년특별저녁집회(2) / 교역자 영성 금식수련회(5-7), 러브릿지_ON(溫)_장년(10)	
	2	11	주님 수세 주일	〈교사헌신예배〉 명예권사추대식(2부예배)	교역자 전체 수련회(16)	제직회 권사회 및 여전도회 신년하례회(14)
	3	18		여전도회주일 〈여전도회헌신예배〉	종로시찰연합일일부흥회(21, @예능교회), 제직간친회(22), 러브릿지_ON(溫)_청년(24)	
	4	25			비전팀 겨울수련회(30-2/1)	
2월	5	1		자매교회 순회예배(오후예배시) 주암교회	목요기도회(5)	
	6	8		세계선교주일(세선봉헌) 〈세계선교위원회헌신예배〉	찬양대와 함께 드리는 수요기도회1(11, 게일찬양대), 러브릿지_ON(溫)_장년(14)	
	7	15	산상 변모 주일		장학증서수여식(2부), 재의수요일(18), 설날연휴(16-18), 청년부 겨울수련회(20-21), 새학기 자녀축복기도회(21)	교구전체모임(20일)
	8	22	사순절1	구역지도자헌신예배	출근길 직장인 섬김 및 새학기 응원 전도활동(24), 러브릿지_ON(溫)_청년(28)	당회
3월	9	1	사순절2	3.1절 기념예배(애국가) (오후예배-김형석 교수)	YBS개강(3), 봄정기심방 시작(3), 실버아카데미개강(4), 구역장성경공부개강(4), 목요기도회(5)	제직회
	10	8	사순절3	남선교회주일 〈남선교회헌신예배〉	데바레카 말씀영성수련회(12-14일, 강화수양관) 러브릿지_ON(溫)_장년(14)	
	11	15	사순절4		음악찬양부 수련회(21)	
	12	22	사순절5	음악찬양부 헌신예배	러브릿지_ON(溫)_청년(28)	
	13	29	종려주일	종려주일	고난주간특별새벽기도회(30-4/4), 목요기도회(4/2), 한식합동추모예배(4/4)	
4월	14	5	부활주일	성례주일, 부활절 부활절축하음악예배(칸타타)	신협주관 선교여행(7-10, 오사카), 러브릿지_ON(溫)_장년(11)	
	15	12		자매교회 순회예배(오후예배시) 일신교회		
	16	19		찬양집회1(트리니티)	제210회 서울노회(23), 러브릿지_ON(溫)_청년(25)	
	17	26		유년부 순회예배(학부모 간담회)	새참콘서트(30)	당회
5월	18	3		어린이주일(온세대예배 3부)	중보기도학교(8-9), 러브릿지_ON(溫)_장년(9)	제직회
	19	10		어버이주일(경로잔치)		
	20	17		스승의 주일 서울노회 남선교회연합회 순회헌신예배 (오후예배)	러브릿지_ON(溫)_청년(23)	서울노회 수련회(19-21)
	21	24	성령강림 주일	특별찬양간증집회 (소진영 간사, 오후예배)		
	22	31	삼위일체 주일	다문화의날 행사 중등부 순회예배(학부모 간담회)	목요기도회(6/4)	
6월	23	7		경건절제 및 환경주일 환경선교 세미나(오후예배)	러브릿지_ON(溫)_장년(13)	
	24	14			사랑의 쌀 나눔 1-1(14), 찬양대와 함께 드리는 수요기도회2(17, 부용찬양대)	
	25	21		영아부 순회예배(학부모 간담회)	사랑의 쌀 나눔 1-2(21), 실버아카데미 종강(24), 구역장성경공부 종강(24), YBS종강(23-27), 러브릿지_ON(溫)_청년(27)	
	26	28		북한선교주일 상반기 새가족 수료식(3부 예배)	목요기도회(7/2)	당회

월	주	일		예배	주간행사	주요 회의
7월	27	5		맥추감사주일, 성례주일	해피팀 여름성경학교(11, 12), 러브릿지_ON(溫)_장년(11)	제직회
	28	12		교회학교 교사주일,기드온순방예배 환경선교사과정 수료식(오후예배)		7월중 청년부 단기선교 (태국&필리핀)
	29	19			드림팀 여름성경학교(24-26), 러브릿지_ON(溫)_청년(25)	
	30	26			비전팀 여름수련회(31-8/2)	
8월	31	2		이단경계주일 이단대책세미나(오후예배)	목요기도회(6), 러브릿지_ON(溫)_장년(8)	
	32	9		해방기념주일(애국가)	청년부 수련회(14-16), 광복절(15)	
	33	16			새학기 자녀축복기도회(22), 러브릿지_ON(溫)_청년(22)	
	34	23			출근길 직장인 섬김 및 새학기 응원 전도활동(27)	
	35	30		유아.유치부 순회예배 (학부모 간담회)	YBS개강(9/1), 가을정기심방 시작(9/1), 구역장성경공부개강(9/2), 실버아카데미개강(9/2), 목요기도회(9/3)	당회
9월	36	6		총회주일, 제직원 헌신예배 Vision Talk Day(새해 목회정책 토론회)	기독교가치관 세미나(9), 러브릿지_ON(溫)_장년(12)	제직회
	37	13			찬양대와 함께 드리는 수요기도회3(16, 연못골찬양대), 러브릿지_ON(溫)_청년(19), 추석합동추모예식(19)	
	38	20		세계선교특별봉헌, 찬양집회2(하늘.다올)	추석연휴(24-26), 추석(25)	
	39	27			오르간 연주회(30), 목요기도회(10/1), 개천절(10/3-토)	
10월	40	4		성례주일	한글날(9), 러브릿지_ON(溫)_장년(10)	10월중 세계선교위원회 중남미 선교 비전트립
	41	11		게일학술세미나	창립기념특별새벽기도회(12-14), 신앙사경회(14-16), 교회대청소(17)	
	42	18		교회창립 132주년 기념주일 〈창립기념축하음악예배〉	YD샌드위치 콘서트(22), 영성금식수련회(23-25), 러브릿지_ON(溫)(25)	
	43	25		종교개혁주일, 초등부 순회예배(학부모 간담회)	사랑의 쌀 나눔 2-1(25), 중보철야기도회(30-31)	당회
11월	44	1			사랑의 쌀 나눔 2-2(1)	제직회, 청년부 정기총회
	45	8		일대일제자양육 수료예배	새가족 영성수련회(13-14, 강화수양관) 러브릿지_ON(溫)_장년(14)	
	46	15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음악예배〉	YBS종강(17~21), 구역장성경공부 종강(18), 수능기도회(19)	
	47	22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실버아카데미종강(25), 성탄트리점등식(본당-25 / 종로5가 지하철역-28) 러브릿지_ON(溫)_청년(28)	
	48	29	대림절1	대림절 첫째주일 〈성경통신수료예배〉	목요기도회(12/3), 구역장 위로회(12/4)	임시당회(예산안 심의)
12월	49	6	대림절2	대림절 둘째주일 하반기 새가족 수료식(3부예배) 새가족부 헌신예배(오후예배)	교구전체모임(11), 러브릿지_ON(溫)_장년(12)	임식제직회(예산안 심의) *전교인 목회정책 설명회
	50	13	대림절3	대림절 셋째주일 〈은퇴 및 추대예식〉	교구별 장기환자심방(15)	공동의회(예산안 심의)
	51	20	대림절4	대림절 넷째주일 〈청소년 주일학교 성탄발표&수료예배〉 고등부 순회예배(학부모 간담회)	복지재단 기관방문(22), 온세대 성탄예배 및 성탄절 칸타타(25), 러브릿지_ON(溫)_청년(26)	
	52	27		송년주일	새해맞이예배(31)	

쉼을 지나 '목회 2기'의 출발선에서



쉼은 멈춤이 아니라 다시 서기 위한 거리 두기다. 작년 하반기에 3개월의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온 김주용 위임목사는 새해를 맞아 목회 2기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새해를 맞아 '연못골' 편집부에서 진행한 이번 인터뷰에서 김주용 위임목사는 쉼 이후 더욱 또렷해진 목회의 방향과 연동교회가 붙들어야 할 본질을 차분히 풀어내 주었다.

쉼, 멈춤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시간

목사님, 안식월을 건강하게 잘 다녀오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목사님께 '쉼'이란 어떤 의미였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쉼은, 교회와는 다른 공간, 다른 시공간 안에서 저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제 인생 철학에서 쉼과 안식은 세상과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안식월 동안에는 의도적으로 제 근황을 교회와 성도님들께 알리지 않았습니다. 거리 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3개월의 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약 3주 정도는 분주한 목회 일정으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찾아 뵈었고, 정리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며 보냈습니다. 이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필라델피아에 계신 이모님의 가정을 찾아 뵙고, 우리 교회에서 시무하셨던 최영민 목사님이 계신 텍사스 댈러스 교회도 방문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댈러스까지 일주일 동안 직접 운전해서 이동했는데, 그 시간이 제게는 큰 힐링이자 안식이었어요. 하루에 8~9시간씩 운전하며 지난 7년간 연동교회에서 사역했던 시간들, 성도님들, 교회, 더 나아가 한국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며 달렸던 그 길이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개척했던 시카고 기쁨의 교회를 방문해 옛 성도님들도 만나고, 예전에 살던 집에도 가보았습니다. 그 집에는 아직 우리 가족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 뭉클했습니다. 딸 율이가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기숙사에 들여보내고 적응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9월 초 귀국했습니다. 미국에 머무는 동안 세 곳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고, 이민교회에서 시무하는 사역자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후 9월에는 송요한 선교사님이 계신 영국 브리스톨도 다녀왔습니다. 이 3개월의 시간을 통해 '쉼은 꼭 필요하구나'라는 걸 깊이 느꼈고, 성도님들께도 이런 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격변하는 세계, 다시 묻는 교회의 방향

안식월을 지나오며 목사님의 시선이나 마음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직접 경험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세계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잘사는 나라지만, 리더십에 따라 사회 분위기가 크게 바뀌고 있었고, 사람들의 삶도 이전보다 훨씬 분주하고 각박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격변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며 교회가 서야 할 자리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목회비전에 대한 정책 설명회를 하셨습니다. 설명회 모두말씀에서 앞으로 교인들과 많은 것들을 소통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상하고 계신 목회 2기의 중요한 방향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구상은 이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연동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존 시스템과 전통을 고려할 때,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일은 조심스럽기에 2~3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고, 이번 정책설명회는 그 과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회를 위해 제직부서의 부장장로님들과 각 위원회의 위원장님들을 중심으로 5~6개의 TF를 구성했고, 안식월 기간 동안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른 교회들을 벤치마킹하며 자료를 모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온 뒤 한 달 동안 이를 정리해 최종안을 만들었습니다. 예산과 정책이 함께 맞물렸고, 장로님들과 몇 차례 토론회를 거듭해 그날 2026년 정책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매년 5~6월에 다음 해 목회 정책을 당회에 미리 알리고 여름 동안 실무자들과 성도님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비전토크데이'라는, 제직과 함께 하는 정책토론회를 진행한 뒤 10월 당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은퇴할 때까지 이 과정을 이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본질, '진정한 부흥'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교회의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동교회만의 색깔을 가진 부흥이어야 하겠죠. 무엇보다 새신자분들은 우리 교회만이 가진 고유한 분위기와 정체성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기에, 우리 고유의 색깔을 더 잘 다듬어 새신자들과 기존의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교회 핵심으로 부흥을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부흥'은 어떤 것인가요.

첫째는 당연히 균형 있는 양적인 성장입니다. 탁상공론에 머무는 부흥이 아닌 실질적 부흥이 눈앞에 펼쳐져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게일 목사님에 대한 책("제임스 게일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을 쓴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것이 아닌, '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내 삶에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인식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131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그런 자부심을 다시 되찾아 양적인 성장과 함께 영성과 기독교적 지성의 성장이 함께 맞물릴 때 진정한 의미의 부흥을 맞이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세대'를 위한 투자와 기성 세대의 내려놓음

그렇다면 이를 위해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과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설교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세대'라고 해야만 이들을 품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위한 재정도 지금보다 더 확장되어야 하고,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교회의 중심에 설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제직부서와 당회에 옵서버로 참여하도록 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3040세대와 청년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가 당회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실현하겠습니다. 어른들이 조금 더 포기하고 자리를 비워주어야 그 공간에 젊은 세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연동교회만의 강점, '품격'과 '따뜻함'

연동교회는 고령화라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지닌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며, 보완해 가야 할 지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동교회가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사실이고, 어르신들을 위한 양육과 돌봄은 당연히 계속해가야 할 과제입니다. 보완할 점이라면, 여기에 더해 어르신들 마음이 젊은 세대를 향해 조금만 더 열리면,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구성원에 비해 청년과 젊은 세대, 주일학교가 비교적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점은, 비판적 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비판의 수위가 선을 넘거나 감정적이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답게 예의를 지키려는 문화가 남아 있고, 서울 도심에 있는 교회임에도 차갑기보다는 따뜻한 정서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런 옛 교회의 정서를 잘 살려 간다면 새로 오신 분들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동교회에는 여전히 교회를 '가족'처럼 느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형님처럼, 삼촌처럼, 또 부모님처럼 품어주는 관계 속에서 젊은 세대가 신앙의 정서를 배워 갈 수 있는 교회는 많지 않은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토양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게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목회자-성도 관계를 위해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요.

네, 바로 '품격'입니다. 우리 목회자나 사모님들의 연령대가 성도님 평균에 비해 낮다 보니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건 참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께는 감사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서로 예의를 갖춰 주셨으면 합니다. 품격은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 드러나죠. 어른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 작은 것까지 챙겨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연동교회는 역사 속에서 그 품격을 지켜온 교회입니다. 그 전통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에게 자존감을 지키며 늘 웃자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목회자는 사실 세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께 사랑과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목사가 됩니다.

연동교회의 공적 사명

한국 사회와 교회가 직면한 현 상황 속에서, 연동교회의 공적 사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첫째는 '역사 세우기'입니다. 연동의 131년은 한국 근현대사와 궤를 같이합니다. 독립운동의 영광은 물론 친일의 아픈 상처까지도 우리 역사의 일부로 포용하고 계속 탐구, 기록해가야 합니다. 전필순 목사님의 과오를 품었던 연동의 품격 있는 역사를 계승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세상과는 다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둘째는 'ESG(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목회'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 처치,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도시 선교, 투명한 거버넌스를 통해 시대와 발맞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새해, 다시 출발선에서

성도들께 전하고 싶은 새해 신앙의 키워드가 있다면요.

올해 교회의 표어는 '새 영을 주시리라'입니다. 새 출발선에 다시 서서 무엇을, 누구와, 왜 시작할지를 묻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목회 2기 역시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처럼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새 영을 받아 우리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서 봅시다.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은 성도들께 축복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마시길 당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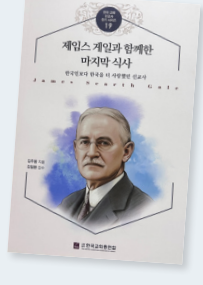
▶인터뷰 일시: 2025년 12월 13일(토) 오전 10:00-11:00 ▶인터뷰 장소: 위임목사실

▶인터뷰어 및 정리자: 박현미 편집장

〈김주용 위임목사 신간 소개〉

"제임스 게일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

(한국교회 선교사 전기시리즈19, 한국교회총연합 발간, 2025. 11. 비매품)



게일 목사와 관련하여 펴낸 그 어떤 도서에서도 보지 못한 독특한 구성으로 짜임새 있게 게일 목사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바울 청년이 게일 선교사를 만나 나누는 대화 사이사이 성경 속 이야기들과 게일 목사 생애와 활동, 연동교회 들이 교차하며 등장한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우리에게 폭 넓은 지식과 성찰, 재미를 동시에 안겨주어 한 권을 단번에 훌쩍 읽게 한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울컥한 감동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이 책은 비매품(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지난 12월 28일(송년주일) 교인들께 무상 배부되었다.

은퇴, 추대, 임직, 감사합니다!



12월 14일(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은퇴, 추대 및 임직예식이 있었다. 1부에서는 김주용 위임목사의 인도로 기도(신당중앙교회 박승화 장로)와 성경봉독(문호교회 전창근 목사) 후 용문교회 이언구 목사의 설교 '알려주는 것보다 알아주는 것이 귀하다(전1:12~18)'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은퇴 및 추대자를 소개한 후 은퇴패와 기념품 증정을 했다. 3부에서는 임직자 소개 후 서약, 안수기도하고, 장로에게 임직패 수여, 안수집사와 권사에게 성경책을 증정했다. 4부는 축하의 시간으로 남선교회 중창단의 축가, 최영걸 목사(홍익교회)의 축사 후 임직자가 교회에 기념품을 증정하고,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에게 서울노회 남선교회연합회와 여전도회연합회, 장로회에서 기념품을 증정하는 순서를 가졌다. 김대진 은퇴장로와 강석주 장로의 대표인사가 이어졌고 이성희 원로목사의 축도로 순서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했다./고현수, 양진실, 이지원 기자

<은퇴 및 추대자> 임직일(시무년수)순

장로 은퇴 : 김대진

공로안수집사 추대 : 임순기, 김용국, 나현, 전중희, 김병웅, 박영만

협동안수집사 은퇴 : 김정권

공로권사 추대 : 김영숙, 고수경, 정숙희, 전용미, 이명진, 라신현, 전영혜

권사 은퇴 : 정미정, 김순자2

<임직자>

장로 임직 : 강석주, 이규성, 박종화, 정금실, 김찬진, 장동철, 김형기, 이만희

안수집사 임직 : 이규진, 박흥열, 유기정, 김영복, 김인교, 김태곤, 김동열, 김윤태, 김헌정, 노환규

권사 임직 : 김이선, 정경아, 배광미, 김수진, 이현승, 우일애, 박영란, 신효덕, 이향이, 김희경, 최문경, 박재연, 김현정2, 김지영1, 박혜란, 양미자, 우윤지, 이대진

〈장로 은퇴 소감〉



김대진 은퇴장로(잠원반포구역) :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장로로서 131년 전통의 연동교회에서 12년간의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은퇴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직임은 내려놓지만 한 사람의 성도로서 기도의 자리를 더욱 굳게 지키며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뒤에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또한 우리 연동교회가 김주용 위임목사님의 영적 리더십 아래 더욱 부흥하며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로안수집사 추대 소감〉



임순기 공로안수집사(은평구역) : 안수집사로 피택 후 찬양대, 상례부, 친교부의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할 만한 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의 삶도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새벽에 주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김용국 공로안수집사(상계중계구역) :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안수집사 직분을 마무리하게 하신 에벤에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공식적인 직분에서는 물러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저의 믿음의 행진에는 은퇴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동교회를 위해 눈물의 씨를 뿌리는 기도의 후원자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중희 공로안수집사(동숭구역) : 몇 주 전 은퇴권사님께서 집사님 은퇴하세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임직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은퇴가 믿기지 않습니다. 나름대로는 각 공동체 임원으로 부서 팀장으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한다고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였음을 고백합니다. 조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주신 주님께 은퇴 후의 삶을 의지하려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르는 곳에서 작은 도구가 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웅 공로안수집사(한신1구역) :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한 이래, 역사가 살아 있는 교회, 저력 있는 연동교회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훌륭하신 믿음의 선배님,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우님들과 함께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과분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범사에 감사하며,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만 공로안수집사(행당금호구역): 세월 앞에 어쩔 수 없이 후배님들께 거룩한 부담을 신세지게 됐네요.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1남선교회 공동체 생활에 충실하길 소망해 봅니다. 은퇴를 축하해 주신 교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공로권사 추대 소감 〉



김영숙 공로권사(마포용산구역) : 12월 재활용실 담당이 시무권사 공식적인 봉사 끝이었습니다. 뿌듯한 마음과 책임을 다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지나온 세월 모두 은혜요 감사였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미래는 그분의 섭리에 맡겨라'라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처럼 은퇴 이후의 시간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시편 18편 1절)



고수경 공로권사(강서구역) :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직을 받고 은퇴하는 날까지 돌아보면 한없이 부족하지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려 애써왔고 열심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남은 날도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여 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정숙희 공로권사(잠원반포구역) : 저는 티끌 밖에 되지 않는 존재임에 아무 흔적도 남기고 싶지 않지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흔적을 남겨야 하는지 주님께 묻습니다. 어느 새벽 제단에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에 그저 눈물로 저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 눈물의 흔적도 끝이 아니며, 이제 새롭게 시작을 알리는 기쁨의 흔적이 되기를 간구해 봅니다. 연동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전용미 공로권사(용인구역) :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디모데후서 4:7). 은퇴식에서 받은 기념패의 마지막 봉독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올 때, 처음 권사의 직분을 받았을 때의 두렵고 떨림이 새삼 떠오릅니다. 그간 마음에 새겼던 나의 사명들은 어떻게 적혔을까 생각해보니, 아쉬운 마음과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세상은 업적을 남기지만 직분자는 믿음을 남겨야 합니다. 세상은 성취를 묻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지켰느냐 물으십니다. 믿음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사람의 칭찬이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은 증거가 되라' 하심일 것입니다. 돌아보니 부족한 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제 남은 순례의 여정도 주님 손잡고 더욱 굳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명진 공로권사(혜화구역) : 하나님께서 저를 기독상담사로 부르셔서 미약한 힘으로나마 연동교회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일을 감당하느라 늘 바쁘게 지내다가, 은퇴를 앞둔 2025년에야 권사회 임원으로, 오병이어 친교실 봉사로, 재활용실 봉사로 마지막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여러 권사님들과 가까이 지내며 교회를 섬기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던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라신현 공로권사(동숭구역) :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에 이르렀음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가벼운 마음도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제 새 일을 이루며 전진할 연동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와 지지로 사랑하며 응원하리라 다짐해봅니다.



전영혜 공로권사(분당구역) : 먼저 부족한 저를 권사의 자리까지 세워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하며 동역해주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부끄럽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믿음과 섬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모두를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권사 은퇴 소감〉



정미정 은퇴권사(은평구역) : 지나온 모든 시간에 감사드리며 또한 시간의 흐름 속에 퇴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여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연동교회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순자2 은퇴권사(쌍문구역) :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동교회에서 섬길 수 있었던 모든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직분에서 물러나지만 연동교회 성도로서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로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 불렀던 이름이, 나의 고백으로



고서현 성도
(HI청년부)

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나왔습니다. 신앙은 제 선택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아기 때 "엄마", "아빠"를 배우듯이, "하나님 믿어!" 하면 "응, 하나님 믿어!"라고 대답하는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왜 믿고, 어떻게 믿는지 고민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고등부에 올라가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실까?' 계시다면, '어떻게 계시는 걸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입교를 하며 스스로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 했고 '내가 지금 무엇을, 왜, 어떻게 믿는 거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고등부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찬양팀으로 섬기며 예배가 단순히 '참여하는 자리'가 아니라 '드리는 자리'라는 것을 배웠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갔습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도 저의 신앙은 여전히 흔들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등부 수련회에서 처음으로 일대일 기도를 했던 경험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친구의 기도제목을 듣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진심으로 그 친구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기도할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행복해졌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제 일상 속에서 '내가 그 친구를 위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돌아보면 고등부에서 저는 찬양팀으로 섬기고 학교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신앙에 대한 의심과 질문도 많았고, 확신보다는 탐색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기는 제 스스로 '나의 마음을 알아가던 시간'이었습니다. 주어진 믿음이 아니라, 고민하고 흔들리면서도 붙잡아 보려 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청년부 예배를 드리며 나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될지, 무엇을 하나님께 가장 많이 묻게 될지 궁금합니다. 고등부에서보다 질문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여전히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주실지, 또 나의 사명은 무엇일지 생각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엄마", "아빠"와 같이 어려서부터 배워온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애칭' 같이 스스로 고백하는 더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이 원고는 고서현 학생이 고등부 졸업 전에 작성했습니다.

매듭



윤현종 성도
(HI청년부)

"나만 잘하면 되지,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오늘날 우리는 독립적인 삶을 선호합니다. 이 흐름은 신앙에도 그대로 스며들어, 신앙은 점점 개인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저 역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신앙은 답답하게 느껴졌고, 막상 혼자가 되었을 때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중·고등학교 6년을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보낸 저는 졸업 이후 오히려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선생님들이 가장 걱정하셨던 것은 '개인의 신앙이 바로 서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신앙이 자신의 신앙이기보다는 학교 안에서 유지되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공동체가 없어도 혼자 설 수 있어야 진짜 신앙이다.' 그래서 혼자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더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은 종종 뒤로 물러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개인의 신앙에서 혼자 설 수 있는 것과 혼자 서려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홀로서기란 고립이나 자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홀로서기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며, 그 '모든 것'에는 나 자신마저 포함됩니다. 이는 결국 나의 의존성을 나 자신이나 타인이 아닌 하나님께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묶여야 합니다. 홀로서기 위해, 우리는 함께해야 합니다. 이 말은 어쩌면 역설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혼자서 홀로 설 수 있다는 믿음은 교만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창 2:18)

한 가닥의 실은 가볍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반면 매듭은 묶여 있어 답답해 보이지만, 힘을 분산시키며 서로를 지탱하게 합니다. 우리는 홀로 서기 위해 묶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꺼이 함께 묶일 것입니다.

말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 묻고 듣는 신앙



한성호 성도
(쌍문구역)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말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시대를 살고 있다. 유튜브를 비롯한 대중매체에서 말은 넘쳐 흐르지만, 이를 기꺼이 들어주는 귀는 점점 더 귀해지고 있는 듯하다. 어쩌면 사람들은 듣고자 하는 욕구보다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 크게 품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듣기는 단순히 침묵하는 태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듣는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묻는 일이며,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의 삶과 생각을 존중하고 있다는 분명한 표현이다. 묻지 않는 경청은 형식에 그치기 쉽지만, 질문이 동반된 경청은 마음에 닿는다.
말하고 싶은 사람은 많고, 질문하며 들으려는 사람은 적어질수록 말의 가치는 자연히 떨어진다. 마치 수요와 공급의 법칙처럼 말은 흔해지고, 귀는 희소해진다.

나이를 먹으면서, 나는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하나의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 모인 사람이 n명이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면, 각자의 이야기 시간도 1/n이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그런데 때로는 자신의 말만 특별히 값비싸다고 여기는 듯, 말할 기회를 독점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는 단순한 예의의 문제를 넘어, 다른 이들이 말하고 묻고 싶어 하는 시간을 빼앗는 일이기도 하다.

성경은 분명히 말보다 듣기를 앞세운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야고보서 1:19)

듣기를 속히 한다는 것은 단지 말소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질문까지 포함하는 태도일 것이다. 또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잠언 10:19)라는 말씀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방향과 태도가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

예수님께서도 늘 많은 말씀을 쏟아 내기보다, 질문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여셨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요한복음 5:6)는 깊은 관심에서 던진 물음이었다.
말이 값싸게 소비되는 시대일수록,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더 잘 말하는 기술보다 더 잘 듣고, 더 깊이 묻는 신앙을 회복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잠언 18:21)

말의 무게가 가벼워진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듣고 묻는 신앙의 무게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더 자주 묻고 더 오래 듣는 신앙이 요청되는 때다.

1, 2월 행사안내

월	일	행사(예정)
1	2일(금)	신년특별저녁집회
	4일(주일)	신년주일, 성례주일
	5일(월) - 7일(수)	교역자 영성 금식수련회(강화수양관)
	10일(토)	러브릿지 온(장로회)
	11일(주일)	명예권사 추대식(2부), 교사헌신예배(오후예배시), 제직회(오후예배후)
	14일(수)	권사회 및 여전도회 신년기도회(오전 11시, 본당)
	16일(금)	교역자 전체수련회
	18일(주일)	여전도회주일, 여전도회헌신예배(오후예배시)
	21일(수)	종로시찰 연합일일부흥회(예능교회)
	22일(목)	온제직 간친회(본당)
	24일(토)	러브릿지 온(HI청년부)
	30일(금) - 2월 1일(주일)	비전팀(중·고등부) 겨울수련회(강화수양관)
2	1일(주일)	자매교회 순회예배(오후예배시, 주암교회)
	5일(목)	목요기도회(오후 7시, 베들레헴예배실)
	8일(주일)	세계선교주일, 세계선교위원회 헌신예배(오후예배시)
	11일(수)	찬양대와 함께 드리는 수요기도회(게일찬양대 주관)
	14일(토)	러브릿지 온(장년)
	15일(주일)	장학증서수여식(2부예배시)
	16일(월) - 18일(수)	설연휴(17일(화) 설날)
	18일(수)	재의수요일
	20일(금)	교구 전체모임(오전 10시 30분, 본당)
	20일(금) - 21일(토)	청년부 겨울수련회
	21일(토)	새학기 자녀 축복기도
	22일(주일)	구역지도자 헌신예배(오후예배시), 당회(오후예배 후)
	24일(화)	출근길 직장인 섬김 및 새학기 응원 전도활동
	28일(토)	러브릿지 온(HI청년부)

2025년 YBS 가을학기 종강

강좌	강사	장소	일시	수강인원
약속의 땅을 찾아서	계대윤 목사	드보라의 방	9월 6일 - 12월 6일	72명
전도폭발	오한빛 목사	210호	9월 11일 - 11월 27일	8명
소망의 나침반: 성경	김 환 목사	야베스의방	9월 6일 - 12월 6일	12명
소망을 회복하는 말씀 묵상(큐티학교)	이진우 목사	드보라의 방	9월 6일 - 11월 12일	20명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사복음서 비교대조를 통한 소망의 메시지 찾기	이건희 목사	나사렛 예배실	9월 6일 - 12월 3일	33명
북스터디: 팀켈러의 '예수, 예수' (청년부 성경공부)	박주안 목사	더게일홀 뉴커머하우스	9월 6일 - 12월 13일	10명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위한 환경선교사 과정	환경선교사 과정	드보라의방	9월 6일 ~ 10월 11일	11명

겨울철에 혈관건강 지키기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겨울은 우리 몸, 특히 혈관에게 가장 가혹한 계절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잔뜩 웅크리게 되는데,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의 혈관들도 함께 긴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혈관 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혈액순환은 왜 겨울철에 특히 위협받나요?

혈관은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깨끗한 피를 전신으로 보내는 동맥과 산소를 모두 사용한 피를 다시 심장으로 나르는 정맥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동맥은 상수도, 정맥은 하수도 역할을 하는 셈인데 동맥과 정맥은 쇠파이프와 달리 신경의 지배를 받아 줄어들거나 늘어납니다. 즉 상황에 따라 '좁아지는 수축'과 '늘어나는 이완'이라는 두 가지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우리 몸에 흐르는 혈류량을 조절하는데 이 혈관의 수축과 이완 작용은 특히 겨울철 추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은 혈관 중에서도 상수도 역할을 하는 '동맥'에게 더욱 위험한 계절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은 체온을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 혈관을 강하게 수축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 혈압을 급격히 올림으로써 한순간 출혈을 일으키거나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에 생명을 위협하는 동맥 질환들에 대해 알려주세요.

겨울철의 급격한 기온 변화와 혈압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명과 직결되는 3대 동맥 질환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뇌졸중**(뇌출혈과 뇌경색)입니다. 순간적으로 올라간 동맥의 압력이 작은 동맥을 터뜨리기도 하고(뇌출혈), 겨울 추위로 혈소판 등 응고물질의 증가로 끈적해진 피가 피떡(혈전)을 만들어 뇌혈관을 막을 수도(뇌경색)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왕관 모양의 혈관인데 추위에 노출되어 관상동맥이 경련을 일으키며 수축하면,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심장에 피가 가지 못해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생기는'협심증'이나, 어느 순간 혈관이 완전히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심근경색'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셋째, **대동맥 질환**입니다. 대동맥은 심장에서 뻗어 나오는 우리 몸의 고속도로와 같은 가장 굵은 혈관인데 겨울철 혈압이 올라가면 대동맥벽이 늘어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거나(대동맥류), 혈관벽의 일부가 찢어지는(대동맥 박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3대 질환만큼 생명을 즉각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지만, 겨울철에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질환이 하나 더



노환규 안수집사
(화양자양구역, 하트웰의원 원장)

있는데 바로 **'말초동맥협착 질환'**입니다. 주로 발/다리에 생기며 날씨가 추워지면 말초 혈관이 더 심하게 수축하여 혈액 공급이 줄어들게 되어 이로 인해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심하면 발가락의 색이 검게 변하기도 합니다. 겨울철에 손발 시림이 유독 심하다면 말초동맥의 협착질환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정맥은 어떻게 변하나요?

반면, 하수도 역할을 하는 정맥은 겨울철에 동맥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맥혈관 속에는 위로 올라가야 하는 정맥피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판막'이라는 위로만 열리는 문짝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판막이 망가지면 위로 올라가야 할 정맥피가 거꾸로 내려옴으로써 말초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무게감이나 팽만감, 통증, 저림, 시림, 열감 등의 다양한 증상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어 기온이 내려가면 정맥이 수축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관의 직경이 좁아지면, 헐거웠던 판막이 서로 맞물리며 닫히는 효과가 생기게 되어 역류하는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름철에는 붓고 아프던 다리가 겨울이 되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병이 나았다'고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낮은 기온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 고장 난 판막이 고쳐진 것은 아닙니다.

겨울철 혈관 건강을 위한 생활 수칙을 알려주세요.

겨울철 우리의 생명선인 혈관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예방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철저한 보온**: 외출 시 모자, 목도리, 장갑을 착용해 체온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특히 장년층 이상에서는 뇌출혈 예방을 위해 머리를 따뜻하게 보온할 것을 권장합니다.

② **기상 직후를 주의**: 잠에서 깬 직후나 따뜻한 실내에서 추운 바깥으로 나갈 때 혈압 변동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침 운동은 가급적 기온이 오른 오후로 미루거나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금연과 절주**: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즉각적으로 수축시킵니다. 과도한 음주 역시 뇌출혈과 심장 질환의 주요 원인이므로 겨울철에는 더욱 자제해야 합니다.

④ **꾸준한 유산소 운동**: 춥다고 웅크려 있기보다 걷기나 가벼운 조깅을 통해 혈관의 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여 심장과 혈관이 놀라지 않도록 합니다.

---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전문가가 답해주는 <궁금해요 Q&A> 코너를 신설합니다. 연애, 결혼, 학업, 자녀교육, 경제, 법률, 건강, 신앙 등에 대한 질문을 '연못골' 편집부로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답을 지면에 게재해드립니다(익명 가능).

*보낼 곳: ydpc3000@gmail.com이나 문자메시지(010-7298-3751)

영육의 조화 속에 강건해지는 청년부

| 금요기도회





11월 28일(금), 12월 12일(금)과 26일(금), 그리고 2026년 1월 9일(금), 가나의집 4층 아가페홀에서 금요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길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러브릿지 온(溫) 도시락 봉사





11월 29일(토), 12월 27일(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러브릿지 온 도시락 봉사가 창신동에서 진행됐습니다. 제법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어르신들께 필요한 물품을 전달드리고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모인 봉사자들의 마음과 섬김이 작은 온기로 어르신들에게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랑을 나누는 이 시간이 계속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 풋살/축구 교제





11월 22일(토)과 11월 30일(주일), 연동교회 청년부와 동숭교회 청년부가 함께 모여 축구를 즐기며 친목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운동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대화를 나누며 청년들이 서로의 신앙과 삶 속에서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크리스천 이성교제 특강



11월 23일(주일), 가나의 집 4층 아가페홀에서 크리스천 이성교제 특강이 열렸습니다. 강사로 박현배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으며, 크리스천 연애가 일반 연애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건강한 크리스천 이성교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새가족 홈커밍데이



12월 7일(주일), 오병이어의 집에서 2025 새가족 홈커밍데이가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도, 청년부에 새로 온 청년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하이 청년부에서 함께 신앙이 자라고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하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 텀블러데이



12월 14일(주일), 4부 예배 후 마당에서 텀블러데이가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들은 각자 집에서 자신만의 텀블러를 가져와 따뜻한 티와 코코아를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과 환경을 생각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성장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 위임목사와 신구임원의 식사 교제



12월 21일(주일), 오병이어의 집에서 김주용 위임목사와 2025·2026년 청년부 회장단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청년부 회장단으로서의 이야기와 서로의 비전을 나누고, 앞으로 청년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셀 리더 양육



2026년부터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가나의집 4층 아가페홀에서 셀리더 양육이 진행됩니다. 셀리더 양육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하나 되어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청년부가 되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HI 청년공동체를 이끌어갈 회장단을 소개합니다!

11월 2일(주일), HI 청년공동체는 총회를 통해 2026년을 이끌어갈 회장, 부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총회 후 그들을 중심으로 총무 1인, 부총무 3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총 10인 구성의 회장단이 꾸려졌습니다. 약 두 달 간의 인수인계를 거쳐 올해 1월, 새로운 회장단이 출범했습니다. 올 한 해 HI 청년공동체는 '하나되는 공동체'라는 표어 아래에서 나아갈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회장단은 '매듭'이라는 이름 하에 HI 청년공동체가 더욱더 끈끈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청년들을 섬길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워진 회장단 '매듭'을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남다은 기자

〈매듭의 한 마디〉



윤현종 청년 (회장)

부족한 저를 청년부 회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열심과 뜻이 앞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뜻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올해 청년부의 목표는 '하나되는 청년부'입니다. 청년들이 서로 하나 되고, 더 나아가 하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실히 섬기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지원 청년 (부회장)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부회장에 선정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은 사랑을 청년부 전체에 흘려보내고 더 많이 사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바로 서는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조형준 청년 (총무)

먼저 된 자 해보겠습니다.



강혜원 청년 (부총무)

안녕하세요, 2026년도 하이 청년부 부총무를 맡게 된 강혜원입니다.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는 하이 청년부를 위해 열심히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강희수 청년 (부총무)

안녕하십니까, 올해 청년부 회장단에서 부총무를 맡게 된 강희수입니다. 오랜 시간 영적으로 방황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청년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성실히 섬기겠습니다.



김보성 청년 (부총무)

안녕하세요 26년도 하이청년부 매듭 회장단에서 부총무를 섬기게 된 김보성입니다. 저의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주된 기도제목은 이웃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회장단을 통해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매듭 회장단 친구들과 함께 잘 실천하여 반석 위에 지은 집 되길 소망합니다!



황보예원 청년 (서기)

섬김의 자리에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하이청년부의 하나됨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한 해 동안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구자현 청년 (부서기)

저의 부족함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감사합니다.



서유니 청년 (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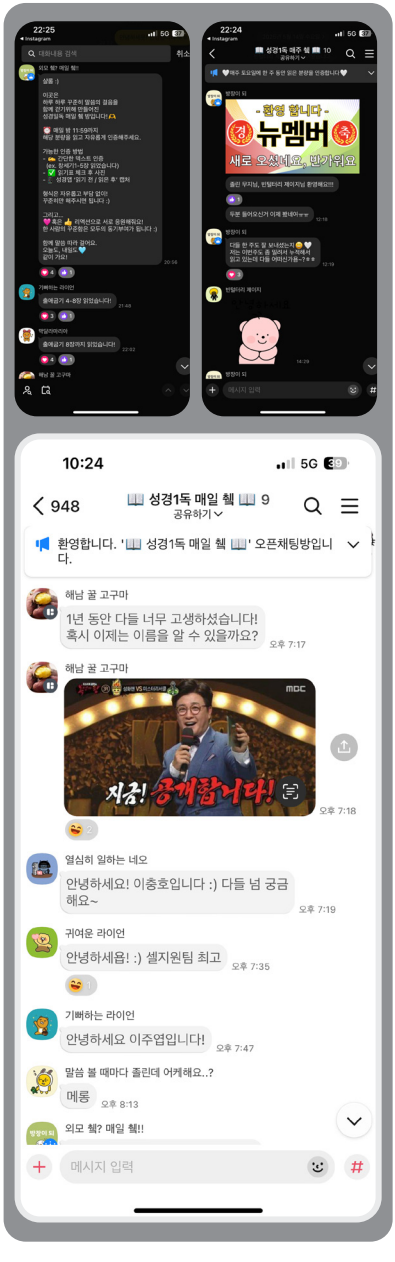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담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든든한 동역자들과 함께 하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회장단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승민 청년 (부회계)

부회계로 하이청년부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HI 청년공동체 성경통독 채팅방을 칭찬합니다!



2025년, 성경통독 채팅방은 HI청년공동체에 성경통독 붐을 일으켰습니다. 셀지원팀을 중심으로 개설된 성경통독 채팅방은 한 청년이 성경 통독표 제작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작된 성경 통독표는 신청을 받아 신청자들에게 제공되었고, 혼자 표를 채워가는 것보다는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셀지원팀은 '성경통독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성경통독 채팅방은 참여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익명으로 입장이 가능한 오픈 채팅방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채팅방은 성경 통독표에 맞춰 매일 성경을 읽고 인증하는 '매일쉘방'과 일주일 단위로 통독을 인증하는 '매주쉘방' 두 개로 나누어 운영되었습니다. 셀지원팀장 길지윤 자매와 셀리더 한지은 자매가 방장으로 활동하며 참여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성경 통독에 완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콘텐츠로 그들을 독려했습니다. 그 덕에 조금 늦게 따라가는 청년들도 응원에 힘입어 잘 따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25년 마지막주에는 완주자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습니다. 익명으로 채팅방이 운영되었기에 닉네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공개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완주자는 박예림(닉네임: 막달라 마리아), 이충호(열심히 일하는 네오), 여동훈(해남 꿀 고구마), 이주엽(기뻐하는 라이언), 전진석(귀여운 라이언) 청년이었습니다. 완주자에게는 상품으로 말씀 캘린더와 스타벅스 상품권이 수여되었으며, 모든 참여자들에게는 말씀 캘린더를 증정했습니다. 성경 통독 채팅방을 이끈 길지윤 자매는 이를 두고 "한 청년의 목소리에서 시작된 일이 약 40명의 청년들이 함께 도전하는 통독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2026년까지 이어지는 청년부의 사역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청년에게 주신 귀한 마음을 통해 HI청년부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더욱 굳건히 세워가길 소망하고 기대합니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2025년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회장단이 중심이 되어 연초부터 성경 통독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의 채팅방으로 개설되어 매일 혹은 매주 인증이 가능합니다. 1독을 넘어 2독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도 참여하고 있으며 익명으로 운영됩니다. 올해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자 노력하는 성경 통독 채팅방의 모든 청년들을 칭찬합니다! / 남다은 기자

그라운드가 하나님의 선교지인 '이영표 선수'



2026년, '연못골'을 통해 사랑하는 연동의 가족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관심이 많은 스포츠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에 도전과 동기 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전해줄 그 첫 번째 주자는 대한민국 축구의 레전드, 영원한 '초롱이' 이영표 선수입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전9:24) 라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이 말씀처럼 그 누구보다 성실히 달린 사람이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을 넘어 PSV 에인트호번, 토트넘, 도르트문트 등 유럽 빅리그를 누비며 한국 축구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커리어보다 그를 더욱 빛나게 한 것은 그라운드 위에서의 '성실함',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정직한 영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처음부터 신실한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 여겼던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을 뚫고 들어온 순간, 그의 인생과 축구의 목적은 '나의 성공'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신념으로 하루에 줄넘기 2단 뛰기를 천 개씩 해내던 그였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자신의 책 《생각이 내가 된다》를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의 몫이지만,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그것이



오한빛 목사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100%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자신의 땀방울 위에 덮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랬기에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않았고, 패배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멈추지 않았던 이영표 선수의 질주는 단순한 근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몸의 예배'였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이 서 있는 그라운드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Coram Deo)'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가정, 직장, 학교라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매일 치열한 영적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수비수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켜야 하고, 때로는 공격수처럼 과감한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인정이나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무대 위에서 끝까지 달리는 성실함입니다. 이영표 선수가 그라운드에 남긴 것은 단순한 승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였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며, 이영표 선수의 정직한 땀방울을 떠올려 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이자 믿음의 그라운드임을 기억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질주'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스포츠인'을 주제로 오한빛 목사께서 6회에 걸쳐 칼럼을 연재합니다./<편집부>

악기는 작고 울림은 큰, “하기폰 오카리나”



2025년 12월 13일(토) 새벽기도회 특주 후 다함께

일단 오시면 압니다. 여기는 좀 따뜻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도, 오래 함께한 분도 이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느끼는 공기가 있습니다. 오카리나를 배우기 이전에, 사람을 만나는 자리라는 점이 먼저 눈에 띕니다. 실력의 높고 낮음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음’이고, 서로를 반기는 ‘환대’가 먼저입니다. 원하는 만큼 배우고, 가능한 만큼 머물 수 있는 곳. 세대를 넘어 자연스럽게 소리와 마음이 합쳐지는 공동체. 하기폰 오카리나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이름부터 뭔가 있어 보이네요.

하기폰 이름은 이성희 원로목사님께서 ‘거룩한 소리’(하기오스(헬라어):거룩하다+폰:소리)라는 뜻으로 지어주셨습니다. 그 뜻처럼 음악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공동체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시작은 소박했습니다. 13년 전 사순절 40일 특새 이후, “토요일마다 모일 수 있는 소그룹이 있으면 좋겠다”는 교회의 제안으로 오카리나반이 출발했습니다. 강사로 이지원 권사가 섭외되어 그해 5월, 20명으로 첫 문을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12기를 지나 올해 13기가 시작되며, 총 38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줌으로 수업을 계속 이어와 기수가 끊어지지 않은 특별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밀운영법: 출석은 엄격하게, 간식은 넉넉하게

하기폰에는 거창한 규칙 대신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출석과 책임입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10분부터 8시 30분까지 모이며, 평균 30명 이상이 꾸준히 참석합니다. 회원은 기존 멤버를 포함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고, 그에 따라 단톡방도 새로 개설합니다. 이는 관리의 편의보다 “새 마음으로 다시 서보자”는 의미에서입니다. 5월과 12월에는 새벽기도회 특주가 있습니다. 중주와 합주가 많은 만큼, 결석이 잦으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잠시 쉬기를 권하기도 하는데, 이 원칙 덕분에 공동체는 단단해졌고, 참여율도 높아졌습니다. 운영은 총무(천재윤

집사), 회계(김태원 회원), 고문(정인용 은퇴장로)과 강사(이지원 권사)가 함께 맡아 하며, 회비는 월 1만 원. 이 작은 회비로도 간식은 늘 넉넉히 준비되고 선물까지 마련합니다. 2년에 한 번은 정기연주회, 그 사이 해에는 향상음악회를 열어 독주와 중주를 번갈아 경험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이런 질서 있는 운영이 13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 세대가 섞이는 기적

이곳에는 40대부터 80대까지, 때로는 10대까지 함께합니다. 새 신자도 있고, 오래된 교인도 있습니다. 타교인과 일반인도 함께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세대와 교인이 한 자리에 모여 꾸준히 관계를 맺는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회원들 가족 행사나, 결혼식, 환갑잔치, 그리고 선교지와 시내산 정상에서도 하기폰의 오카리나는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타교회 분은 이곳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교회에 오카리나 소그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기폰 오카리나는 어떤 누군가를 무대에 세우는 곳이 아니라, 누구든 어디서나 설 수 있는 지도자로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쉬었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생각나서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새 신자가 교회에 정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세대와 어울리며 따뜻함을 느끼고 싶다면, 토요일 아침 하기폰 소그룹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권합니다. / 박현미 편집장



2024년 정기연주회(@더게일홀)

▶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7:10
▶장소: 베들레헴예배실
▶회비: 월 1만원
▶가입 및 문의: 강사 이지원 권사, 총무 천재윤 집사

〈잠깐 인터뷰〉 하기폰 12기 장규상, 이현숙 집사 부부(도곡역삼구역)

오카리나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1년을 지내고 보니 어떠신가요?

주일 예배 중 들었던 오카리나 합주의 음색이 오래 마음에 남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아내). 아내의 권유로 시작했지만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꾸준히 연습하며 '내가 연주할 수 있는 곡 하나'를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남편).

부부가 함께 악기를 배운 후 생긴 변화와 부부들에게 권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요?

같은 악기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대화와 공감의 시간이 늘었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더해졌습니다(아내). 오카리나는 휴대성, 편리성도 좋고 특주를 하며 은혜까지 받으니 망설이지 말고 부부가 함께 도전해 보시길 권합니다(남편).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삶의 퍼즐을 맞추는 믿음의 여정

(신애라, 규장, 2024.5)



배우 신애라 씨의 에세이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는 개인의 자전적 이야기를 넘어, 삶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신앙의 눈으로 깊이 통찰하고 해석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인에게 깊은 공감과 교훈을, 비기독교인에게는 진솔한 인간적 고뇌와 극복의 이야기를 통해 따뜻한 위로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제시합니다.

삶의 굽이굽이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섭리

신애라 작가는 이 책에서 어린 시절의 아픔, 연기 활동, 결혼과 육아 등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펼쳐 보입니다. 특히 자녀 입양, 유산, 배우자와의 동반 사역 같은 굵직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라는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언뜻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성경적 진리를 몸소 증명합니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예측 불가능한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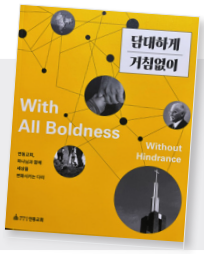
기독교인이 얻을 수 있는 깊은 교훈과 감동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는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여러 면에서 깊은 교훈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첫째, 전적인 신뢰와 내려놓음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애라 작가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보여줍니다. 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평안과 해결의 열쇠임을 일깨웁니다. **둘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안목을 길러줍니다.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을 증언하며, 고난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위로를 줍니다. **셋째**, 감사와 긍정의 삶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준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넷째**, 삶의 목적과 소명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냅니다. 자신의 삶이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달으며, 독자들에게도 각자의 소명을 발견할 것을 권면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는 신애라 작가가 삶의 희로애락 속에서 발견한 신앙적 통찰과 감사,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삶의 방향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며, 비기독교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전합니다. 신애라 작가의 진솔한 고백은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임재철 기자



〈담대하게 거침없이〉

교회 홍보 책자와 홍보 영상 제작

지난해 12월, 문화선교부(부장 김성영 장로) 주관으로 제작된 연동교회 홍보책자와 홍보영상이 교인들에게 공개되었다. 132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의 형성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온 연동교회의 정체성과 비전,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한눈에 담아낸 이번 프로젝트는 새가족과 교회를 찾는 이들을 위한 '첫 안내서'이자, 교회 공동체 스스로의 발걸음을 돌아보게 하는 의미 있는 기록이 되었다. 아래에 홍보 책자와 홍보 영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총괄해 크게 수고하고 애쓰신 김환 목사(문화선교부 담당)와의 일문일답을 실었다.

이번 홍보책자와 영상은 어떤 배경에서 기획되었나요?

연동교회는 132년의 긴 역사와 함께 한국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왔지만, 게일 목사의 사역과 교회의 발자취를 알기 쉽게 정리한 홍보 자료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교회를 처음 찾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돕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을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하는 필요에서 출발했습니다.

제작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당회 산하에 교회종합홍보TF를 구성하고, 문화선교부가 중심이 되어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홍보책자와 영상은 전문가들의 손길로 완성되었지만, 무엇보다 교회의 역사와 현재를 함께 만들어 온 성도들의 참여와 협조의 큰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교회의 이야기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담아낸 작업이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큰 의미입니다.

홍보책자와 영상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나요?

교회의 시작과 오늘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지향하는 방향을 하나의 흐름 안에서 담았습니다. 과거의 역사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사역과 미래의 비전을 함께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책자 108p, 영상 4분4초)으로, 처음 교회를 찾는 분들도 연동교회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홍보 콘텐츠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예정인가요?

홍보책자와 영상은 새가족을 맞이하는 자리와 교회를 소개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처음 연동교회를 만나는 분들에게는 친절한 안내서가 되고, 기존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번에 제작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교회 홈페이지 내 '역사관' 페이지를 구축해,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박현미 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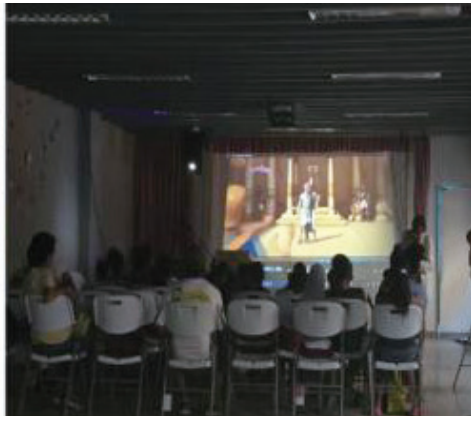


교회 홍보영상 인트로(유튜브)

어둠 속에서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 쿠바 선교 소식

어느덧 2026년의 시작에 서 있습니다. 돌아보면 쿠바의 상황도, 개인적인 건강도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만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고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역자님의 삶에도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쿠바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노후된 발전소로 정전이 일상이 되었고, 경제 붕괴와 함께 거리에는 쓰레기가 쌓여가며 뎅기열과 치쿤구니야 같은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치쿤구니야는 심한 관절통과 후유증으로 많은 이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으며,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기본 의약품과 진통제입니다. 정전과 치안 악화로 일상생활조차 위험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 교회는 9개월 전 46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120명 이상의 예배자로 채워졌고, 주일 예배뿐 아니라 성도·홈리스·어린이들을 섬기는 다양한 사역이 주중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교회를 넘어 선교센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홈리스 사역 또한 크게 확장되어 매주 수백 명이 교회를 찾고 있으며, 하바나 중심 공원에서는 찬양과 말씀이 선포될 때 홈리스와 지나가는 시민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가정교회 개척과 빈민촌 교회 섬김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순종으로 나아가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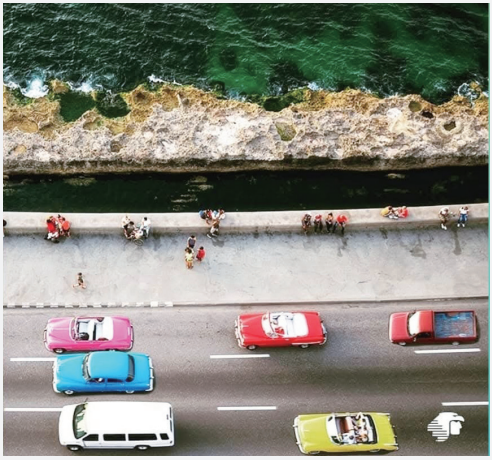
이러한 사역 가운데 한국 교회와 동역자들의 헌신은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선교팀의 방문과 지속적인 중보기도, 물질과 사랑의 나눔을 통해 쿠바 땅에 소망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선교는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사역 또한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계속해서 기도로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역자님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오늘도 쿠바 땅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쿠바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기도합니다!



쿠바는 중남미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나라로, 혁명 역사와 살사 음악, 시가와 럼주, 1950년대 미국 올드카로 잘 알려져 있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건축과 사회주의 체제가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 속에서 HAVANA의 Malecón 해안도로와 Varadero 해변은 대표적인 명소이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쿠바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노후된 발전소로 인한 만성적 정전과 연료·식량 부족, 물가 상승이 국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외화 부족으로 의약품과 생필품 수급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 제재와 베네수엘라 경제 붕괴의 여파가 겹치며 국가 전반의 회복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이범찬 선교사

2026년 중국어예배반 사역 방향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중국어예배반은 교회의 표어인 “새 영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중국어예배반은 오는 유학생, 근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다시 역파송하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세 명의 중국 유학생이 졸업 후 귀국하였습니다. 이들이 귀국 이후에도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나 신앙을 지속하며,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올해의 주요 사역은 8월 제주도 비전트립, 전도 세미나 및 일대일 제자훈련, 리더 양육, 데바레카 성경통독입니다. 먼저, 8월 제주도 비전트립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학생들과 근로자들에게 허락하신 다음 단계를 함께 분별하는 비전의 시간입니다. 작년 여름수련회 가운데 받은 감동을 통해, 이제는 중국인 성도들도 믿음 안에서 시야를 넓히고 사역의 지경을 확장해야 할 시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비전트립은 국내에 있는 성도들과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신앙과 상황을 나누고, 중국 현지의 현실을 듣는 가운데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기도하며 분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도 세미나는 중국 유학생들이 방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점에 맞추어 5주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미나를 통해 전도의 이론과 방법을 배울뿐만 아니라, 배운 내용을 실제로 캠퍼스 현장에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대일 제자훈련을 통해 한 영혼이 신앙 안에 뿌리를 잘 내려, 삶의 자리에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연동의 영성훈련 중의 하나인 데바레카 성경통독을 통해 모든 유학생과 근로자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도록 합니다.

2026년 한 해의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중국어예배반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워지며, 특히 주변에 많은 유학생들과 근로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복음을 듣고,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되며,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중국어예배반 박점분 목사
WeChat ID : df7135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긴 WIN-서울교회 성탄 나눔



WIN-서울교회는 2025년 12월 14일(주일),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성탄절을 맞아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찍 귀국하는 일정에 맞추어, 예년보다 한 주 앞당겨 성탄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가 단순한 연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성탄의 의미를 기념하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나심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특별히 연동교회 다문화선교팀의 귀한 방문은 이번 성탄 모임을 더욱 뜻깊게 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사역팀은 격려와 함께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며 공동체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모임은 무엇보다도 진심 어린 공동 찬양과 예배로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려 드린 찬양 속에 “Gloria in Excelsis Deo”의 고백이 울려 퍼졌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긍휼과 사랑이 그 자리를 충만히 채웠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또한 공동의 기도로 마무리되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오직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필리핀예배공동체 아벨 목사
Facebook : Abel Raby

〈 영아부 〉 부장 : 박윤신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1	16	하나님께 감사해요(빌 4:19)	추수감사주일, 영아부 가족 찬양제
	23	거룩하게 살아요(벧전 2:9)	말씀놀이, 대림절 찬양 배우기 11월 22일(토) 교사대학 참석
	30	천사가 알려주었어요(눅1:31)	대림절 첫주, 성탄 찬양 배우기
12	7	기쁨으로 기다려요(살전 1:7)	대림절 둘째주, 12월 말씀송 배우기
	14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요(계21:6)	대림절 셋째주, 성탄축하 발표 연습
	21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마2:11)	대림절 넷째주, 새친구(윤서원, 오하이, 오하루) 환영, 성탄축하 발표 및 성탄절 예배(오후 예배 온세대예배로 성탄 발표 및 수료예배)
	28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계22:7)	수료 및 진급 예배, 표경림 목사님 송별 인사
1	4	복 있는 사람이에요(아브라함)(창12:2)	성찬식, 조승연 전도사님 첫인사 및 반, 선생님 소개

/ 박윤신 부장



추수감사주일 영아부 가족 감사 찬양제







새친구를 환영합니다~ (윤서원, 오하이, 오하루)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온세대 성탄예배



이제 유아부로 올라가요



표경림 목사님 감사했어요



조승연 전도사님 반가워요

〈 유아부 〉 부장 : 정윤정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1	16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눠요(빌4:19)	추수감사주일 활동
	23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요(벧전2:9)	대림절 활동
	30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알려 주었어요(눅1:31)	대림절 활동
12	7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다려요(살전1:7)	12월 생일파티
	14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요(계21:6)	성탄발표 연습
	21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마2:11)	성탄발표 연습
	28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계22:7)	졸업식 시상, 기념사진
1	4	하나님을 닮은 나(창1:27)	4세 환영 유아부 소개, 반 배정

/ 정윤정 부장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만든 크리스마트 트리





대림절 말씀달력 활동



성탄발표



우리 졸업해요



4세 동생들을 환영해요

〈 유치부 〉 부장 : 유진희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1	16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눠요(빌4:19)	추수감사 행사
	23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요(벧전 2:9)	성탄 발표 준비 연습
	30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 주었어요(눅1:31)	성탄 발표 준비 연습
12	7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다려요(살전1:7)	12월 생일파티
	14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요(계21:6)	성탄 발표 준비
	21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마2:11)	성탄 온가족 예배
	28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계22:7)	말씀 암송잔치 하반기 시상/수료식
1	4	하나님을 닮은 나(창1:27)	신입생 환영 /반 편성 및 소개

/ 최정미 교사



어서와 유치부는 처음이지^^!!



7살 형아! 언니! 진급을 축하해요!!



유치부 졸업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저 들 밖에 한 밤중에~~~

〈 유년부 〉 부장 : 이현승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1	16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우리(빌 4:19)	반별 말씀 활동(공과)
	23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우리(벧전 2:9)	하반기 달란트 잔치, 교사대학(22일)
	30	천사가 알려 준 소식(눅 1:31)	대림절 1, U-퀴즈 온 더 나사렛
12	7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유년부(살전 1:7)	대림절 2, 12월 생일잔치
	14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해요(계 21:6)	대림절 3, 성탄 발표 준비
	21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요(마 2:11)	대림절 4, 온세대 성탄 축하 예배
	28	다시 오실 예수님(계 22:7)	송년주일, 수료예배, 교사 모임
1	4	하나님을 닮은 우리(창 1:27-28)	신년 주일, 반별 말씀 활동(공과)

/ 성창원 교사



U-퀴즈 온 더 나사렛



12월 생일잔치


하반기 달란트 시장


성탄주일 발표



2025년 수료예배

〈 초등부 〉 부장 : 김태정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1	16	바울의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빌 4:19)	추수감사주일 감사헌물봉헌과 식탁교제
	23	1세기 로마제국 탐방기(벧전 2:9)	공과 활동
	30	〈나사렛 일보〉 대림절 특집호 (눅 1:31)	대림절 첫주. 성탄 축하 공연 연습(어린이 초 점등식)
12	7	챌린지 "나도 데살로니가교회처럼!" (살전 1:7)	대림절 둘째주. 성탄 축하 공연 연습(어린이 초 점등식)
	14	꼬리에 꼬리를 무는 환상 이야기! (계 21:6)	대림절 셋째주. 성탄 축하 공연 연습
	21	출발! 동방박사 여행기(마 2:1)	대림절 넷째주. 성탄절 온세대 예배 발표회(오후 예배)
	28	마지막 약속을 대하는 방법(계 22:7)	진급 수료식 및 수상식
1	4	생명의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요! (창 1:27-28)	신입 환영회 및 라포형성 프로그램

/ 김태정 부장



추수감사주일 헌물 봉헌 및 식탁나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 예배



어린이 대림절 촛불 점화



성탄 공연 연습 중 식사



성탄절 온세대 예배 공연



수료 진급 및 시상식

〈 어린이부 〉 부장 : 윤종훈 안수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1	16	AWANA 2학기 “너도 걸을 수 있어” (마 14:30)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 대그룹 (예배/시상) 종강 올림픽 회의
	23	AWANA 2학기 “완벽한 팀플레이” (행 18:3)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 대그룹 (예배/시상) 교사 전체 모임 (하반기 평가회)
	30	AWANA 2학기 “내꺼 내꺼” (눅 15:4~7)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 대그룹 (예배/시상) 교사대학 (11/23), 열림홀 확장 공사
12	7	AWANA 2학기 종강 미니올림픽	Game (학생, 학부모 참여) / AWANA 시상식 / 2025년 수료자 시상 (수료증 및 사진첩)
	14	겨울 어린이부 (AWANA 방학)	MOVIE DAY
	21	성탄 온세대 예배로 휴무	
	28	겨울 어린이부 (AWANA 방학) “기쁘게 살아요” (전 12:12)	조예은 전도사님 부임 특별활동 : 아크릴 자석 이름표 만들기 활동
1	4	겨울 어린이부 (AWANA 방학)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창 1:27)	특별활동 :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 자화상 그리고 자기소개하기

/ 윤종훈 부장



종강 미니올림픽



조예은 전도사님과 첫 예배



3년차 교사 시상식



수료자 시상식

〈 중등부 〉 부장 : 정선아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1	16	풍성함과 나눔의 삶(빌 4:15-20)	반별 공과 모임-추수감사주일 이벤트, 교회마당 중등부 광고 온세대 성탄축하예배(12/21) 발표회 참가 인원모집
	23	우리의 정체성, 거룩한 백성(벧전 2:4-10)	세례 입교 희망자 모집 이단, 사이비 대책 특강 1주차 (정금실 장로님)
	30	약속에 임하는 자세(눅 1:26-38)	권광호 전도사님 사임 및 송별회 이단, 사이비 대책 특강 2주차 (정금실 장로님)
12	7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살전 1:2-10)	오한빛 목사님 설교, 온세대 성탄축하예배(12/21) 발표회 연습
	14	엽떡이야? 나야? (계 1-7)	장판규 전도사님 부임 , 학생총회-2026 임원선출 / 12월 생일자 축하 온세대 성탄축하예배(12/21) 발표회 연습
	21	사랑 할래? 말래?(롬 5:8)	초등부 방문하여 중등부 소개 온세대 성탄축하예배 발표회, 성탄 선물
	28	불안핑이 되지 않으려면(계 22:6-7)	수료식 및 시상식, 중등부 겨울 수련회 광고 2026년 1월 30일 - 2월 1일
1	4	주님을 마주하다 (요 3:16)	신입생 환영, 중등부 교사들 소개.성찬 예식 새로운 반 배정 및 반별 모임 -기도 카드 작성

/ 박성윤 교사



이단, 사이비 대책 특강(정금실 장로)



권광호 전도사 송별회



장판규 전도사 부임









온세대 성탄 축하 예배 순간들

〈 고등부 〉 부장 : 유성욱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1	16	1 나누기 2의 계산법(빌4:15~20)	야외예배(장소:도자골 달뫼)15일(토) 고3 격려 삼겹살 파티
	23	하나님이 줍줍한 돌(벧전2:4~10)	기독교 가치관 교육(God's Design, 생명존중)
	30	불 좀 꺼 줄래? 예수님 좀 보게 (사9:1~7)	대림절 1주 :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HOPE) 학년별 주관 예배 3학년, 세례입교 교육
12	7	전쟁 같은 세상, 구유에 놓인 평화 (눅2:8~14)	대림절 2주 : 이땅에 오신 평화(PEACE)의 왕 학년별 주관 예배 2학년, 세례입교 교육학생총회(26년 임원/회장:변시온,부회장:안민영,총무:김한빛)
	14	울면 안 돼? 울어도 돼!(시126:5~6)	대림절 3주 : 가장 큰 기쁨(JOY)의 좋은 소식 학년별 주관 예배 1학년, 세례입교 교육
	21	기다림은 사랑입니다(마25:1~13)	대림절 4주 :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LOVE) 포트럭파티, 캠퍼스 이단 교육(고3), 온세대 성탄 축하예배 17~18일 고3MT (동두천 자연휴양림)
	28	낯설지만 가장 찬란한 내일 (고전15:42~44)	파자마파티 예배, 타임캡슐, 시상 개근상(고서현, 박수연, 최가은), 정근상(육기돈, 윤재윤, 안민영)
1	4	다스림이라는 오해,형상이라는 은혜(창1:26-28)	성례주일, 신입생 환영, 선생님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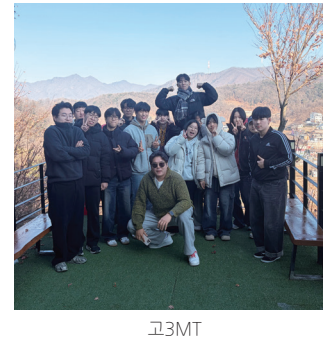
/ 이승원 부감



야외예배



기독교 가치관교육



고3MT



온세대예배



캠퍼스 이단교육



파자마파티예배

순간을 담고, 시간을 요리하는 "김현철 집사"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요?

연동교회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입니다. 교회를 오가는 분들을 맞이하고, 연동교회 공간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진을 오래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그냥 취미였어요. 사진 찍는 게 좋아서 조금씩 찍다 보니까, 그게 기회가 되어서 일로도 이어졌죠.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누군가가 사용하거나 사가는 일도 있었고요. 한류가 한창일 때 외국인 팬들을 대상으로 한 사진 일을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배용준 씨가 출연했던 '겨울연가' 이후부터 한류가 크게 붐이었잖아요. 아이돌 그룹 공연, 팬미팅 현장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어요.

요리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진과는 또 다른 길인데요.

요리도 원래 취미였어요. 그런데 미국 이민을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웠습니다. 생활을 해야 하니까, 제대로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죠. 한식을 먼저 배우고 자격증도 취득하고요. 출장 요리도 조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엔 일식을 배웠어요. 외국에 나가면 아무래도 일식이 경쟁력이 있잖아요. 한식, 일식을 수료하고 자격증도 준비해서 실제 현

장에서 1년 정도 외식업 일을 하기도 했어요.

와우! 그 덕분인지 교회 행사 때 가끔 그의 손맛이 빛을 발할 때가 있죠. 운이 좋으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게 될지도 모르겠군요ㅎ

외식업 현장 경험도 있으셨군요.

회전초밥집, 일식당 주방에서 일을 했어요. 앞주방과 뒷주방 모두 경험했죠. 식당 운영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건설회사 구내식당을 관리하는 일도 몇 년 했어요.

외식업은 많이 힘들지 않던가요?

주방 일은 정말 힘들어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다 마침 쉬는 시기가 생겨서 이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미국 이민을 준비하셨다고요?

미국 샌디에고 쪽으로 준비했어요. 아내가 메디컬 관련으로 신청을 했는데,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개인 병원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민이 무산됐죠. 하지만, 이민 준비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셨군요!

이민 준비하는 시기에 아내가 태워주는 차로 다니게 된 교회에서 세 번째 가던 날 발목을 잡혔죠. 40이 넘어서 만난 예수님이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김현철 집사는 교회로 출근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도 교회라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한다.
여러 재능을 다듬어 온 시간 속에서 그는 새로운 자신을 만나왔다. 그의 재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일지,
“왓두유뽀리빙”은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네요.



즐거움을 알고
다재다능한 김현철 집사(안국평창구역)와 함께한
“왓두유뽀리빙” 이었습니다.

다음 연못골에서 만나요. / 박동진 기자



방송작가 박예송 청년

| 나의 직업 소명 도전기

24살, 저는 졸업을 앞두고 PD라는 막연한 꿈을 품은 채 라디오 인턴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이 깊은 사수 PD님을 만나 다양한 업무를 배우며, 함께 〈아픈 마음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코너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정신의학과 교수 등 여러 출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의 아픔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고 기도해 본 적 없던 제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몹시 아팠지만, 바로 그 순간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코너를 시작하며 PD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용기내어 자신의 아픔을 말할 수 있다면, 그걸로 우리는 된 거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방송을 통해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 이후, 저는 사람을 살리는 방송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디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그중에서도 '새롭게 하소서'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2주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새롭게 하소서〉 작가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작가로 방송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 흘러가고,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 닿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사를 배워갔습니다. 출연자들이 나누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의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누군가의 삶을 다시 살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며 저 역시 그 믿음을 어떻게 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길을 고민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걸을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꼭 필요

한 순간마다 꼭 맞는 위로를 보내주셨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제 길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 부르심 앞에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많은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주변 청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나이를 불문하고 진로를 고민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꿈이 없어도 괜찮고, 지금 당장 좋아하는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보지 않았던 곳을 가보고, 시도하지 않았던 일에도 도전해보길 바랍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에 마음이 움직이는지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여나 그 시간이 의미 없게 느껴질지라도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어떤 직업을 꿈꾸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작게는 이 자리로 부르신 뜻을 묻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각자의 소명이 선명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방송 작가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송 청년 ☎ 010-4211-1615

/ 기획과 진행: 송재호 기자







“여기는 저희에게 집 같은 곳이에요.”

연동교회에서 믿음을 키워가는 정지훈, 김보림 성도 부부



정지훈, 김보림 성도 부부와 아들 해솔(해피3구역)

결혼과 출산은 삶의 중심을 바꿔주며 무엇을 믿으며, 어디에 머물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일 무렵부터 연동교회 교인이 된 정지훈(36)·김보림(33) 성도 부부 역시 결혼과 아이(해솔, 20개월)를 통해 신앙과 공동체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그에 맞는 교회를 찾았고, 지금은 ‘집’ 같은, ‘안식처’ 같은 연동교회에서 믿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무신앙자였고, 아내는 모태신앙자입니다”

정지훈 성도는 결혼 전까지 종교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기독교 신자라 결혼 후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게 됐다”고 말합니다. 반면 김보림 성도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나고 자란 모태신앙자입니다. 그러나 예배만 드릴 뿐 공동체에 깊이 속하지 못했던 신자였습니다. “공동체 생활에 대한 부담이 늘 있었어요. 예배는 드렸지만, 선뜻 사람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려다 보니, 신앙도 양육도 공동체 없이는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연동교회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교회입니다.”

연동교회에 오게 된 계기에는 지인들의 소개와 문화적 인연이 있었습니다. 5세 때부터 판소리를 시작한 김보림 성도는 박동진 명창(게일문화상 4회 수상자)에게 판소리를 배운 인연과 김보경(김양숙) 명창과 송민정 선배들을 통해 연동교회에 대해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는 송민정 선배의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연동교회에 와보니 영아들을 위한 예배가 따로 있고, 선생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또 비슷한 또래의 부모들이 한 공간에 함께 있다는 점에서 저희 부부도 돌봄을 받는 느낌이에요.” 부부에게 교회는 ‘아이를 데리고 예배 드리는 곳’ 뿐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함께 돌봄 받고 믿음을 키우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작년, 인도네시아 단기선교가 저를 신앙인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정지훈 성도에게 신앙의 전환점은 2025년 인도네시아 단기선교였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면 단기선교를 다녀오라는 권유에 따라 떠난 인도네시아 단기선교는 그에게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아내 따라 교회에 다녔다면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대상이 제 마음 안에 생겼어요. 믿음이 이렇게도 시작될 수 있구나, 처음 느꼈죠.”

현재 정지훈 성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 한 켠으로 아내의 예술활동을 돕기 위한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예술을 하다 보니, 제가 뒤에서 지지해줄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싶어요. 매니저처럼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도 고민 중입니다.”

김보림 성도는 판소리 예술가로, 소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달란트가 제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판소리를 가르치는 교육의 자리에서 좋은 어른, 믿음의 어른으로 서고 싶다는 소망도 조심스레 꺼내놓았습니다. .

“연동교회는 저희 부부에게 집 같은 곳입니다.”

부부는 연동교회를 한마디로 ‘집 같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서울 생활의 외로움 속에서 김보림 성도는 “몸과 마음을 정착시켜 준 곳”을 만났고, 정지훈 성도는 “따뜻하고 신앙심 깊은 교인들 덕분에 교회가 천국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정지훈 성도의 기도제목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불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과 두려움이 클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고,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보림 성도는 아내이자 엄마로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을 소망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함께 바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과 함께 이겨내는 가정, 말씀대로 사는 가정, 그리고 아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정지훈, 김보림 성도 부부에게 연동교회는 서툴러도 함께 머물며 자라갈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신앙의 장소이기 이전에, 삶이 쉬어가는 집,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고 아이가 자라듯 부부의 신앙과 삶의 자리들도 더 크고 싱그럽게 자라가길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 박현미 편집장



2025년 추수감사주일 오색가을찬양예배에서
〈춘향가〉를 부르는 김보림 성도

“박주안 목사님, 반갑습니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부목사로 연동교회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전임목사로 섬기다 올해 1월부터 부목사로 부임한 박주안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 이전에 ‘예배자’로 서고자 하는 그의 마음과, 연동교회를 향한 감사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목사님, 연동교회 부목사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전에 비해 마음가짐이나 책임감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연동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제게 큰 복이자 기쁨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와 전통의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마주하는 일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직분에 대한 책임감은 이전보다 더 무겁게 다가오지만, 마음의 중심은 변치 않으려 합니다. ‘직분자’로서 성공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께 연동교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연동교회는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곳’입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 선포 등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며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간단히 가족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고향 전주에는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고, 현재 연동교회 사택에서는 아내(차혜수 사모)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이끄는 '핵심 가치' 세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추구하는 목회의 핵심가치를 세 가지로 꼽으라면,

첫 번째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기에, 모든 사역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마침까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역을 감당하고,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서로 축복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기에 늘 감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쁨인 동시에, 이 시대를 이겨낼 능력이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궁금합니다.

원래 제 꿈은 간호사였습니다. 간호학을 준비하던 중,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찬양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어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찬양 사역을 준비하고자 신학교에 입학했고,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 평안을 세상에 전하라는 강한 감동과 부르심이 있었기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바쁜 사역 가운데서 목사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취미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저는 활동적인 운동을 좋아합니다. 특히 구기 종목을 즐기고, 달리는 것도 좋아합니다. 지칠 때 가만히 쉬기보다, 땀 흘리며 달릴 때 오히려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현재 맡고 계신 사역을 소개해주세요. 또 연동교회에서 꼭 해보고 싶은 사역이 있다면요?

현재 청년부(하이 청년 공동체) 총괄과 장년부, 은퇴권사회, 그리고 사회봉사부를 맡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고 싶은 사역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맡겨진 자리에서 성심을 다해 섬기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힘차게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하이 청년 공동체의 표어가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청년부의 모든 사역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진행과 정리: 박현미 편집장



잘잘법부흥회(2025.12.6)에서 찬양하는 박주안 목사와 예람찬양단



장판규 전도사
(중등부)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

안녕하세요, 연동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등부 사역을 맡은 자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신앙과 인생의 방향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중등부 아이들과 말씀으로 동행할 수 있음은 영광이며 특별한 사명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서 사역'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라 믿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출석'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삶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제자이자 자녀로 자라도록 지도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세우고,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울고 웃는 동행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교사들과 협력하고 가정과는 신뢰 속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중등부를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은혜를 함께 누리길 기대하며,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연 전도사
(영아부)

다시 연못가에 서다

연동교회는 제게 늘 '시작'의 기억으로 남아 있는 공동체입니다. 청년부 사역자로 이곳에 처음 섰을 때는 사역이 무엇인지도, 성도님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연동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사역의 한복판에서 떠났습니다. 사임 이후 4년은 멀어짐이 아니라 신앙과 사역을 다시 가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고, 저는 기다림 속에서 한계와 연약함을 마주하며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보다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 끝에 다시 연동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큰 은혜이자 책임입니다. 영아부 전도사로 부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라 믿습니다. 말보다 삶으로, 설명보다 함께 울고 웃으며 신앙을 전하는 자리에서 다시 배우는 마음으로 서고자 합니다. 영아부는 가장 작은 지체들이 모인 곳이지만, 동시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자리입니다. 아이들과 부모님, 교사들과 함께 '잘하겠다'는 다짐보다 '성실히 함께 걷겠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다시 연못가에 서서 주님께서 일으키실 잔잔한 물결을 기대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조예은 전도사
(어린이부)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자

안녕하세요, 저는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를 졸업한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연동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영훈고등학교에서 종교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채플 예배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부임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전10:24)"였습니다. 학교 사역을 통해 성적과 경쟁에 지친 학생들을 만나며, 사랑보다 성과를 먼저 생각했던 제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새겨주신 고백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목회 사역에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와 학교로 부르신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낮은 자리의 사랑을 바라보며, 어린이부와 교사들, 성도님들을 품는 작은 결단으로 서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린이부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겸손히 감당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표경림 목사
(영아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동교회 영아부에서 5년간 섬겼던 표경림 목사입니다. 연동의 뜰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보낸 시간들은 제 삶의 소중한 한 부분이 되었고, 쉽게 잊혀지지 않을 은혜의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영아부 아기들의 작은 숨결과 웃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깊이를 배웠고, 부모님들의 눈빛과 기도 속에서 신앙의 진실함을 배웠습니다. 매주일 아침,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며 사랑과 정성으로 섬겨 주신 영아부 선생님들을 통해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없이 드려진 헌신과 수고는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주일학교의 행사와 사역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의 품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동행해 주신 그 섬김은 제 사역에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위임목사님과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덕분에 교역자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감사로 기억하며,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권광호 전도사
(중등부)

한 공동체가 한 전도사를 키워 준 시간

유치부 2년, 중등부 3년, 총 5년의 시간 동안 다음 세대를 품고 함께 예배하며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과 사역에 참으로 큰 선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과 눈물, 예배의 자리에서 나누었던 수많은 순간들은 한 전도사를 조금씩 자라게 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사역의 시작은 코로나라는 낯설고 두려운 시기였습니다. 사역의 경험도, 준비도 충분하지 않았던 20대 중반의 나이, 대학도 아직 졸업하지 못한 미숙한 전도사가 첫 사역지인 연동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비어 있는 예배당과 화면 너머로 아이들을 마주하며, '과연 부족한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수없이 스스로에게 묻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동교회는 그 미숙함을 이유로 재촉하지 않았고, 기다림과 기도로 한 전도사를 품어 주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려움은 배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배운 순전한 믿음, 말씀 앞에서 다시 서게 되었던 많은 순간들, 그리고 언제나 사랑과 격려를 담아 보내주신 성도님들의 기도는 제 사역의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연동교회는 제 사역의 첫 출발지이자, 제 신앙과 소명이 형성된 가장 소중한 배움의 자리입니다. 이제 저는 전임 사역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자리로 나아가지만, 연동교회 공동체가 제게 가르쳐 준 믿음의 자세와 사랑의 방식은 앞으로의 사역 속에서도 제 삶을 이끄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연동교회가 저를 여기까지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받은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는 사역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연동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지난 5년의 시간, 한 전도사를 함께 키워 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연동교회 장학생 모집

"58년의 역사, 다음 세대를 위한 든든한 후원자 연동장학회가 함께합니다"

1968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58년째를 맞이하는 연동장학회(장학위원장 강철민 장로)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매년 20~25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연동장학회는 현재 29개 장학기금으로(총액 약 29억 원) 다음 세대를 위한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연동교회 등록하여 출석하고 있는 학생 중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며 학교 성적도 우수하여 장차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며, 아래 해당 학생은 장학생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기금 출연과 봉헌을 기대합니다. 5천만 원 이상 출연 시에는 개별 장학기금 명을 부여하고 있으며, 장학기금을 위한 소액의 봉헌도 가능합니다.

▣ 장학금 신청 및 지급 상세

▶ 신청 기간: 2026년 1월 3일 ~ 1월 23일(금요일 24시까지)

▶ 장학금 지급 예정일: 2026년 2월 19일 ~ 20일경

▶ 지급 한도: 대학교 재학 기간 동안 한 학생에게 최대 4회까지 지급 (한 가정 한 학생)

▶ 지급 금액: 대학생 한 학기당 200만 원, 고등학생 한 학기당 80만 원

▶ 연속 지급: 1학기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결격 사유(휴학 등)가 없는 한, 2학기에도 장학금을 받습니다.

▣ 선발 기준 및 구비 서류

1. 선발 기준

▶ 성실한 주일성수 및 연동교회 등록하여 출석 중인 학생

▶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 시 우대

▶ 학교 성적: 고등학생 평균 70점 이상, 대학생 평균 3.0 이상 우대

▶ 가정 환경: 학업에 전념을 위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

2. 구비 서류

▶ 장학금 신청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양식은 교회 홈페이지 장학위원회에서 다운로드

▶ 장학금 신청서 1부(사진파일 별도 제출)

▶ 이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1부(신입생은 합격증)

▶ 자기 소개서 1부

▶ 추천서 1부(담당 교역자, 주일학교 부장, 또는 각 구역 구역장)

▶ 부모 연간 건강 보험료 납부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1부(맞벌이 시 부모 모두 제출)

▣ 장학기금 현황(총 29개)

No	장학기금명	출연자(가족)	지급 대상자
1	**연동**	연동교회 교우들	대학생
2	**동해**	유경실, 오재호 가족	
3	**하양**	장하린, 홍대숙 가족	
4	**운암·순원**	박문희 가족	대학생
5	**희연**	김응식, 이보숙	고등학생
6	**선유**	송선영, 함유순 가족	대학생
7	**부암**	나긔환, 나성 가족	정신여고, 경신고생
8	**세중**	윤석헌, 최영준	대학생
9	**정은옥**	정은옥, 문우철 가족	
10	**최우암**	최우암	
11	**원정**	최정녀, 한영신 가족	대학생, 신대생
12	**운수·정희**	정운수, 편정희	여자신학생/대학생
13	**유민화**	유민화, 신중식	신대원생/대학생
14	**김영순·이선인**	이선인과 제자들	박사과정 대학원생
15	**김성태·윤선항**	김성태, 윤선항	파이프오르간(음악)전공/신학생
16	**성은**	김기호, 김인숙	대학생, 군필/군인가족
17	**연동 권사회**	연동 권사회	신대원생(목회 지망) 2~4명
18	**연동 안수집사회**	연동 안수집사회	대학생
19	**건실**	김제실, 김응선	대학생
20	**방정현**	방영민, 방영호	대학생
21	**이지연**	김장렬, 최은주	장신대 신대원 2명(등록금 전액)
22	**문정**	장문식, 오정애	대학생(대학, 대학원)
23	**김병웅·박은화**	김병웅 박은화 가족	대학생(대학, 대학원)
24	**그루터기**	여명선 그루터기	대학생(대학, 대학원)
25	**박순자**	박순자	대학생(대학, 대학원)
26	**지소라**	김윤환 가족	대학생(대학, 대학원)
27	**신우**	강윤희 가족	대학생(대학, 대학원)
28	**윤영**	안윤성, 한영신 가족	대학생(대학, 대학원)
29	**모과나무**	박일규, 박혜령, 박혜진, 박유신	대학생(대학, 대학원)

3. 접수 및 기타

▶ 모든 서류는 이메일 접수 원칙(vivawj@naver.com), 어려울 시 사무처 접수 가능

▶ 모든 증명서는 해당 기관의 관인이 있어야 유효함

▶ 선발된 학생은 장학금 전달식 및 간담회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 신청 및 문의: 김원장 안수집사 (☎ 010-4307-3021, E-mail: vivawj@naver.com)

2026년 자치기관 임원 명단

안수집사회

회 장 : 김성동	부회장 : 이성춘	총 무 : 황석상
서 기 : 유기정	회 계 : 박현철	부총무 · 김태곤

권사회

회 장 : 김선희2	부회장 : 박혜영	서 기 : 윤 희
부서기 : 김선미	회 계 : 김옥남	부회계 : 이혜석

제1남선교회

회 장 : 박재천	부회장 : 김용국	총 무 : 안창익
서 기 : 이승염	회 계 : 김옥기	

제2남선교회

회 장 : 이규성	부회장 : 박흥열	총 무 : 김윤태
서 기 : 황석상	회 계 : 유기정	

제3남선교회

회 장 : 류창현	부회장 : 황보성목	총 무 : 김희석
서 기 : 남득현	회 계 : 민홍기	

제4남선교회

회 장 : 김선일	부회장 : 변석균	총 무 : 박건우

제1여전도회

회 장 : 김경은	부회장 : 김영신	서 기 : 조진숙
부서기 : 유연숙	회 계 : 김옥남	부회계 : 손옥분

제2여전도회

회 장 : 박영란	부회장 : 조수남	서 기 : 김은주
부서기 : 윤문희	회 계 : 민병애	부회계 : 박재경

제3여전도회

회 장 : 최계숙	부회장 : 김이선, 김세현	서 기 : 소정훈
부서기 : 임미정, 이민정	회 계 : 김세라	부회계 : 이혜열, 이선아

제4여전도회

회 장 : 김은희3	부회장 : 박수경, 김정숙	서 기 : 임경선
부서기 : 박희정	회 계 : 조현경	부회계 : 마정화

2026년 새로운 교구 편성

1교구	2교구	3교구
명륜연건구역	성북1구역	한신1구역
낙산구역	성북2구역	한신2구역
혜화구역	행당금호구역	효제구역
동숭구역	5,6가주얼리구역	충신구역
원남구역	백주년구역	안국평창구역
마포용산구역	연지구역	광진중곡구역
쌍문구역	은평구역	압구정청담삼성구역
월계구역	동대문구역	서초방배구역
상계중계구역	응암역촌구역	도곡역삼구역
신내구역	잠원반포구역	수유구역
구리남양주양평구역	용인구역	연희홍제구역
개포수서구역	강서구역	의정부구역
경인구역	과천안산구역	영등포구로구역

4교구	5교구
삼선구역	비전1구역
이화구역	비전2구역
중구구역	비전3구역
장안구역	비전4구역
제기청량리회기구역	드림1구역
길음구역	드림2구역
화양자양구역	드림3구역
동작관악구역	해피1구역
고양구역	해피2구역
일산구역	해피3구역
양천구역	신혼부부구역
송파구역	아일(미혼)구역
명일하남구역	
분당구역	



청소년 주일학교 교사대학



11월 22일(토)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청소년 주일학교 교사대학이 있었다. 1부 예배는 다같이 찬양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기도(여명선 장로, 주일학교 교장)와 성경봉독(정영석 집사, 주일학교 지원팀 총무)에 이어 김주용 위임목사의 '새 영을 주시리라(겔 11:14~21)'는 제목의 말씀이 이어졌다. 축도와 광고 후 2부에서는 고은식 목사(The Way 미래세대 트레이닝센터 대표)와 이셀라 전도사(남서울 교회)의 세미나로 진행되었다. 교사대학을 마친 후 각 부서별로 모여 점심식사를 하며 교사들만의 시간을 가졌다. / 박윤신 기자

실버아카데미 종강예배와 발표회



노래부르기

11월 26일(수) 베들레헴예배실에서 실버아카데미(당시 원장 김남순 권사) 종강예배와 종강발표회가 있었다. 1부예배는 김남순 원장의 인도로 찬송 490장을 부른 뒤 2반 최창희 학생 기도와 성경봉독(잠 16:16), 실버아카데미찬양대의 찬양과 김주용 위임목사의 "끼, 깡, 꾀, 꿈" 제목의 말씀이 이어졌다. 말씀 뒤 축도와 황현숙 원감의 광고로 1부 순서를 마쳤다. 2부 종강발표회는 노래부르기, 색연필화, 몸다스리기, 탁구반, 건강체조 등 5개 반이 한 학기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는 발표회로 꾸며졌다. 학생들의 열정과 웃음으로 한바탕 달아오른 발표회에 이어 개근상, 정근상 시상식으로 2025년 가을학기를 모두 마쳤다. 봄학기는 올해 3월 4일(수) 개강한다. / 박현미 편집장



색연필화



몸다스리기



탁구반



건강체조

크리스마스 트리니팅 결산과 캐럴인서울



11월 20일(목) 크리스마스 트리니팅 문화자원봉사단(단장 장연화 권사)은 종로5가 연동교회 근처 40그루에 옷을 입혔다. 손수레로 편물들을 실어나르고 양쪽에 사다리를 세워 옷 입혔는데 하늘이 푸르고 따뜻해 작업하기 좋았다. 9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1~4시에 베들레헴예배실에서 모여 10회에 걸쳐 강사한테 다양한 기법을 배워가며 뜨개질을 했고 숙제로 집에서 짜오기도 했다. 나무에 입힌 뜨개옷은 1월 29일(목)에 철거한다. 11월 27일(목) 오전 11시에 한국기독교회관 정문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니팅 세리머니(제막식), 연동교회 본당에서 캐럴인서울 2025(뮤지컬 갈라쇼. 출연:류승주, 난아, 윤정민), 북토크 하나의 작은 친절(진행: 박성실 매거진 허브 에디터) 을 진행했다. / 장연화 공로권사/ 사진제공: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문화법인

세계선교위원회 소식



11월 29일(토) 세계선교위원회(위원장 김이순 장로)는 세미나실에서 정기회의를 했다. 연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7개 선교지와 4개의 기관 후원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선교지들은 지속후원이 결정되었고 기관 중 일부 지역은 후원시 계획대로 종료가 결정되었다.

새해에는 원포인트 프로젝트를 재개할 예정이다. 세계 곳곳의 선교지들은 여러 후원지로부터의 후원액을 통하여 선교사업을 진행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원포인트 프로젝트는 각 선교지들로부터의 공모를 통하여 사업내용과 복음효과 등을 심의하여 선정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후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완공을 기념하여 청장년부가 단기선교로 다녀왔던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의 사랑의 공동체 건축사업이 기존 진행되었던 대표적인 사례이다. 작년 10월 가을에 청장년부가 방문하였던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의 김태환 선교사께서 긴급히 치료를 요하는 사항이 있어 일시 귀국해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연동교회에는 다같이 기도를 모았으며 사랑의 기금과 신협에서 수술비를 지원했다. 다행히 선교사님은 경과가 양호하여 작년 11월 초 무사히 귀국했으며 연동교회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 윤종훈 안수집사(세계선교위원회 총무)

종로5가역 성탄트리 점등식



11월 25일(화), 26일(수) 예배부(당시 부장 박은화 장로) 미화장식팀(팀장 이금숙 권사)과 직원들이 함께 본당과 종로5가 지하철역 성탄트리 장식을 했다. 11월 26일(수) 수요기도회 시간에 본당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었다. 29일(토) 오전 7시 30분 국내선교부(부장 이호진 장로)에서 주관한 종로5가역 성탄트리 점등식에서는 지하철 관내 종교활동금지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김주용 위임목사의 기도 후 성탄트리 점등식만 가졌다. / 김종은 기자

성경통신부 수료 예배



11월 30일(주일) 오후예배는 성경통신부 부장 황석상 안수집사의 인도로 성경통신부 수료식을 겸해 수료 예배를 드렸다. 성경통신부 부감인 김남순 권사의 기도와 교무위원 김옥기 집사의 여호수아 1:5~9 성경봉독에 이어, "승리의 비결"라는 제목으로 박점분 목사가 설교를 하였다. 말씀 후에 김헌정 안수집사가 성경통신부 학사 보고를 시작으로 시상까지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2025년 수료자는 남자 58명, 여자 146명으로 총 204명이며, 한가족 수료는 총 4가족이었다. 12년 이상의 특별기 수료자 중에서 유명숙 공로권사가 수료자 전체를 대표하여 김주용 위임목사로부터 상을 받았다./ 진상협 기자

4남·4여 선교회 '러브릿지 ON(溫)' 봉사활동



12월 13일(토), 4남선교회(회장 육경민 집사)와 4여전도회(회장 장의숙 집사)는 창신동 지역에 있는 쪽방촌 30가구를 방문하여 준비한 음식료과 생필품(15품목, 19개)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수많은 인파와 차량들이 오가는 번잡한 상가건물 뒤로 시대를 한참이나 거슬러 올라간 듯 좁은 골목길과 낡은 건물들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 풍경이 마치 회색빛 그림을 마주하는 듯 나에게는 쓸쓸함과 답답함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겨울비를 맞아가며 지번을 찾기조차 어려운 집들을 찾아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물품을 전달해 드리면서, 오히려 따뜻하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건네 주시는 분들을 통해 이 작은 나눔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리고 현실의 삶이 녹록치 않을 그곳에서 살아 가시는 이웃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부족함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장의숙 집사(25년 4여전도회 회장)

부모자녀소통코칭특강



12월 7일(주일) 상담팀(팀장 이혜석 권사)은 가나의 집 위즈덤하우스에서 '지지않고 싸우지 않고 소통하기'라는 제목으로 부모자녀소통코칭특강을 열었다. 강사는 부모코칭과 가족상담 전문가인 황지영 상담사(나무아래상담코칭센터 대표)로, 자녀양육은 결국 관계의 문제이기에 부모가 먼저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해야 한다는 말로 강의를 시작했다. 부모가 자녀들의 코칭형 리더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했으며 특히 사춘기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을 코칭할 때에는 모두 절실히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의 후에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고 저자 친필사인의 저서를 선물로 받는 즐거움도 누렸다. / 이혜석 권사(상담팀 팀장)

하반기 새가족 수료식



12월 7일(주일) 본당과 베들레헴예배실에서 새가족 하반기 수료식 및 전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는 연동교회에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신 새가족분들을 격려하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이다. 늘 그래왔듯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은 새가족의 참여였다. 낮은 새가족 참석률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지고 수료식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 새가족부의 기도는 수료식 당일까지도 끊이지 않는 발걸음으로 보여주셨다. 총 21명중 17명의 참석. 새가족분들의 '참석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우린 감사가 넘쳐났다. 전체 만남의 시간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함께할 지체 한분한분의 소개로 서로를 익히며 교제를 나누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웃음과 이야기꽃이 피었고, 단순한 방문자가 아닌, 연동의 한 가족으로서 연결되는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수료식이 끝나자마자 새가족분들의 고마움의 인사는 잠시 힘들었던 우리의 피로를 감사로 바꾸어 주었다. 수료식이 끝나고 오늘따라 더욱 눈에 들어오는 연동의 십자가. 25년 교육을 마치고 수료하신 49명 새가족분들의 정착을 위해, 그리고 갈수록 뜸해지는 새가족의 발걸음을 위해 연동교회가 '영적 등대'로 온전히 거듭나길 간절히 기도드린다.

/ 김세현 집사(새가족관리팀 총무)

〈2025년 하반기 수료자 명단〉

NO	교구	구역	새가족
1	1	동숭	이래나
2		혜화	김동선
3	2	강서	이성례, 황규연
4		동대문	박금열
5		56주얼리	여주미
6	3	수유	안효구
7		안국평창	최종걸
8		한신1	김남구, 이종희
9	4	중구	김영빈, 이소정
10		화양자양	류호승
11		장안	경문호
12	5	씽씽1	김영현, 김정화
13		씽씽6	최정열, 임희재
14		원남	주광식
15		중국유학생	김련숙, 임삭륜

성탄절 축하음악예배



12월 25일(목) 성탄절을 맞아 오전 11시 본당에서 게일찬양대(당시 대장 송영옥 권사) 주관으로 축하음악예배를 드렸다. 1부예배는 계대윤 목사 인도로 성시교독 119편 교독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후 109장 찬송과 오정애 공로권사의 성경봉독(요1:6-14), 박광흥 은퇴장로의 기도 후에 김주용 위임목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말씀 후에 아동세례와 유아세례식이 거행되어 성탄의 기쁨이 다음 세대로 이어짐을 함께 축복하였고, 123장 찬송 후 축도로 1부 순서를 마쳤다.

2부는 축하찬양 순서로, 조셉 마틴의 〈회중과 함께 부르는 "크리스마스 노래"〉 9곡이 이어졌다. 게일찬양대는 성도들께 성탄절의 의미를 더해주고자 9곡의 시작마다 성탄절의 유래와 한국 역사와 연동교회에서 이어져온 성탄절의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영상으로 소개해 성도들에게 이해와 감동을 더해주었다. 특별히 이날은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교인 모두가 찬양대와 한 목소리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으로 드려져 더욱 뜻깊게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다. / 박현미 편집장



회중과 함께 부르는 "크리스마스 노래"(조셉 마틴)

1. 고요한 밤, 거룩한 밤	2. 참 반가운 신도여
3. 오랫동안 기다리던	4. 곧 오소서 임마누엘
5. 오 거룩한 밤	6. 오 베들레헴 작은 골
7. 천사들의 노래가	8. 그 어린 주 예수/ 고요한 밤
9.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 들 밖에	

〈신간 안내〉

"해가 떠오르기 전 새벽처럼"

(고위공, 패스트북, 316쪽, 2025.11)



고위공 공로안수집사(분당구역)가 11월 19일에 신앙에세이집 〈해가 떠오르기 전 새벽처럼〉(패스트북, 316쪽)을 펴냈습니다. 가장 짙은 어둠은 언제나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찾아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 새벽처럼〉은 바로 그 어둠의 시간, 응답 없는 침묵과 고난의 밤을 지나며 길어올린 신앙의 기록입니다. 화려한 간증이나 딱딱한 교리 설명 대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진솔한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부재의 시간, 기도해도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인 밤, 저자는 그 무기력한 시간과 정직하게 대면하며 깨달은 기도의 본질과 신앙의 회복에 대해 말해줍니다. 이 책은 오랜 신앙인에게는 잊고 있던 첫 마음을, 믿음의 길을 막 시작한 이에게는 은혜의 여명을 건네며, 가장 어두운 밤 이후에 찾아오는 새벽의 위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 박현미 편집장

131년의 역사를 딛고, 미래 세대와 함께 걷는 화해의 길

2026년 목회 정책 설명회





연동교회는 12월 7일(주일) 오후예배 후에 전교인을 대상으로 2026년도 목회 정책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열고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당회의 일방적 통보가 아닌, 6개월간의 기획위원회(당시 위원장 방영민 장로) 심의와 '비전 토크데이'를 통한 성도들의 의견 수렴 등 아래에서부터 의견을 쌓아 올린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목회 철학: '화해 목회'로 잇는 세 가지 다리

연동교회의 정체성은 '화해'에 있습니다. 김주용 목사는 이를 세 가지 다리로 구체화했습니다.

▶ 시간의 다리 (역사): 131년의 전통을 계승하며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카이로스)을 발견하도록 예배와 신학적 깊이를 더합니다.

▶ 사람의 다리 (세대): 세대 간 간극을 교육과 양육으로 메우며, 기성세대의 신앙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 공간의 다리 (세상): 전도와 선교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특히 기후 위기 시대에 창조 세계를 돌보는 '녹색 교회' 사역을 실천합니다.

■ 2026년 주제: "새 영을 주시리라" (에스겔 11:14-21)

2026년 연동교회는 말씀 안에서의 '회복'과 '변화'에 집중합니다.

▶ 말씀 영성 훈련 '데바레카' 전면화: 현재 교인의 30%가 참여 중인 데바레카를 교회의 핵심 영성 축으로 세웁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항존직 피택 시 필수 이수 조건을 검토할 만큼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 부드러운 마음의 회복: 상처받은 이들이 교회에서 마음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단순한 친교를 넘어 말씀 안에서 세대 간, 세상 간의 막힌 담을 허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 미래를 위한 변화: 3040 세대 '씽씽 구역'과 교구 개편

가장 큰 변화는 교회의 허리인 3040 세대를 위한 전담 5교구 신설입니다. 기존 지역 기반에서 탈피해 자녀 나이와 생활 패턴을 고려한 13개 '씽씽 구역'을 운영합니다. 위임목사와 사역자가 직접 전담하며, 이들이 교회 운영의 주역이 되도록 거버넌스 참여 기회도 대폭 확대합니다.

■ 예배의 역동성과 영적 깊이

참여가 저조했던 수요 예배를 전문 연주자가 함께하는 '음악 기도회'로 개편해 직장인과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또한 5월 중보기도 학교와 10월 중보 철야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불씨를 살려 연동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견고히 세웁니다.

■ 장기 비전 및 행정 개선

131년 역사를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역사관 증축'과 과거의 개척 정신을 잇는 '교회 개척 기금' 마련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사랑의 쌀 나누기'의 실무적 개선, 텀블러 사용 등 친환경 실천, 예산을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통해 내실을 기합니다.

■ 맺음말

김주용 위임목사는 "성도는 사역을 이끄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강력한 영적 부흥을 준비하는 연동교회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임재철 기자

기독교 종교문화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한 학술연구 심포지엄



12월 23일(화) 한국교회총연합(UCCK, 이하 한교총)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기독교 종교문화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한 학술연구 심포지엄>이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예홀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교총이 연구한 종교문화자원 목록화, 관광자원화 사업 5년차 보고와 한국기독교 초기에 활동하였던 선교사 3인 '제임스 게일(James S. Gale), '호머 헐트'(Homer B. Hulbert), 그리고 '체스넛'(Arthur B. Chestnut)을 재조명하고 기독교 문화유산 지역 상생 모델 구축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학술 심포지엄에서 김주용 위임목사가 "제임스 게일의 생애와 선교사상 : 스티븐 배반스의 상황화 신학모델들을 중심으로" 주제로 발표하였다. 그 외에도 목양장로교회 김 진 박사의 논찬과 순복음대학원대학교 김상백 박사가 "미국 하나님의성회 첫 공식 내한 선교사 체스넛의 생애와 영성" 주제로 발표하고 아산대학교 김재희 박사의 논찬과 총신대학교 허은철 박사의 "선교사로서 헐버트의 활동과 그 의의" 주제로 발표하고 용인대학교 최보영 박사의 논찬이 있었다./ 진상협 기자

신임집사 교육, 은퇴 후 집사 임명

12월 14일(주일)과 21일(주일) 영성훈련부(부장 최은주 장로) 제직훈련팀(팀장 신용식 안수집사)에서 주관하는 2026년 신임집사 교육이 있었다.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는 각 교구 담당 목사께서 일대일로 지도하였다. 2026년 신임집사는 총 36명(남자 14명, 여자 22명)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남자 : 김승규(화양자양구역), 김재혁(서초방배구역), 김헌철(수유구역), 박해구(영등포구로구역), 신동화(수유구역)
윤병익(해피3구역), 조진철(제기청량리회기구역), 최형민(신혼부부구역), 홍성기(한신2구역)

여자 : 권영분(구리남양주양평구역), 권은영(한신2구역), 김다은(해피3구역), 김민정(동작관악구역) ,김지원(화양자양구역)
김현숙(한신1구역) , 김효숙(화양자양구역), 명옥순(이화구역), 문현숙(수유구역), 송예리(아일(싱글)구역),
윤새로미(신혼부부구역), 윤정례(수유구역), 정승주(연희홍제구역)

직분을 받지 못하고 은퇴하신 70세 이상 성도들께 2025년부터 은퇴 후 집사를 임명하고 있다. 2025년, 2026년 은퇴 후 집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2025년 남 : 국성호(의정부구역), 김재용(경인구역), 김홍일(강서구역), 양주용(행당금호구역)
여 : 김경남(행당금호구역), 김귀옥(상계중계구역), 김순녀(용인구역), 유옥화(연지구역), 이경자(효제구역),
이복순(경인구역), 이영희(의정부구역), 이해자(서초방배구역), 정춘자(수유구역), 진귀례(성북1구역)
2026년 남 : 김이천(동대문구역), 박헌익(원남구역)
여 : 김인숙(이화구역), 문명자(상계중계구역), 서정자(구리남양주양평구역), 윤정임(중구구역), 이순우(충신구역),
전복련(강서구역), 진봉례(이화구역)

/ 김종은 기자

에이레네(eirene) : 하나님이 시작하신 평화의 이야기

온세대 성탄축하 및 청소년 주일학교 수료예배

12월 21일(주일) 오후 예배는 '온세대 성탄축하 및 청소년주일학교 수료예배'로 본당에서 모두 함께 드렸다. 주일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시작한 예배는 기도와 성경 봉독에 이어 표경림 목사(영아부)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눅2:14)'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어졌다. 기도 후 주일학교 8개 부서의 수료식과 모범·근속 교사상 시상이 이어졌다. 시상식 후에 영아부부터 고등부, 주니어 콰이어&앙상블까지 각 부서의 성탄 발표회가 시작되었다.

부모님 품에 안긴 아기부터 10대 청소년들까지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것을 보여주고 함께 웃으며 즐긴 성탄 축하 잔치의 시간이었다. 이후 산타로 변신한 김주용 위임목사가 등장하여 "메리 크리스마스! & 해피 에이레네" 성탄 인사를 서로 나눈 뒤 모두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한목소리로 찬양 드린 후 축도로 마무리하였다. 준비와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주일학교의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주일학교 학생들 모두의 수고에 감사하며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드린다. / 박윤신 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f8JmGRSehP8



기쁘다 구주 오셨네! 산타 목사 등장


말씀 전하는 표경림 목사

12월 21일
온세대 성탄 축하 및 수료 예배


중고등부 연합 악기 연주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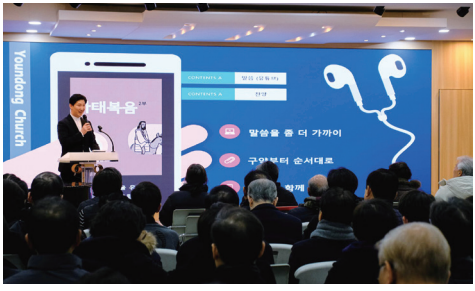

주일학교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하는 찬양팀


주일학교 각부서의 수료자 대표



다같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데바레카 성경통독 전체모임



12월 31일(수)에 영성훈련부(부장 최은주 장로) 데바레카는 베들레헴예배실에서 전체모임을 했다. 저녁 9시에 조장모임 후 9시30분부터 전체모임을 시작했다. 김주용 위임목사의 격려사와 기도, 최은주 장로가 경과보고를 하고 이진우 목사가 성경통독 소개와 통독방법을 설명했다. 송상경 안수집사(데바레카 팀장)의 조원발표 후 조별모임을 하고 마쳤다. 참석한 신청자들에게는 기념품(말씀노트와 볼펜)과 통독표를 증정했다. / 이지원 기자

*신청자: 42조, 461명(1월 13일 기준)

권사회 및 여전도회 신년기도회



1월 14일(수) 오전 11시 본당에서 새해를 맞아 권사회와 여전도회 회원들이 신년기도회로 모였다. 1여전도회 김경은 회장의 인도로 예배의 문을 열어 찬송 505장을 부른 뒤 권사회 김선희 회장의 기도, 2여전도회 박영란 회장의 성경봉독(시25:5)과 여전도회찬양대 찬양에 이어 김주용 위임목사가 "기다림의 영성"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말씀 뒤 나라를 위하여 (최계숙 3여전도회 회장), 교회를 위하여(김은희 4여전도회 회장), 권사회와 여전도회를 위하여(김영신 1여전도회 부회장) 특별기도가 있었고 권사회와 각 여전도회 실행위원 소개 후 위임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각 여전도회는 1월 월례회로 모였다가 오병이어의 집에 마련된 점심식사를 먹으며 담소 시간을 가졌다. 18일(주일) 오후예배는 여전도회헌신예배로 드려진다. / 박현미 편집장

명예권사 추대식



1월 11일(주일) 2부예배 시 명예권사 추대식이 있었다. 집사로 봉사하시고, 은퇴하신 80세 이상되신 9분을 명예권사로 추대하였다.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 못하신 3분의 명예권사께는 교구담당목사가 개별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김종은 기자

명예권사 : 송경복(길음구역), 양옥희(제기청량리회기구역), 김보동(과천안산구역), 봉정민(은평구역), 정나희(압구정청담삼성구역)
김명자1(이화구역), 성열숙(낙산구역), 임윤미(행당금호구역), 박현기(중구구역)

새해맞이 예배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새해맞이 예배가 12월 31일(주일) 오후 11시부터 1월 1일(월) 오전 12시 30분까지 있었다. 참회기도, 연합찬양팀의 찬양, 방영민 장로의 기도 후 김선희 권사의 성경봉독(에스겔 11:14~21), 게일찬양대의 '주기도문'이 이어졌다. 위임목사는 '새 영을 주시리라'는 제목으로 연동의 가족들이 태풍처럼 몰려오는 새 영으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란다는 설교를 전하였다. 2025년 한해를 돌아보는 영상을 시청하고, 함께 카운트 다운 후 새해를 맞는 기쁨의 인사를 나누었다. 새해 주제 찬양 '보라 새 일을'을 함께 찬양했으며, 원로목사와 교역자. 장로들이 앞으로 나와 70세 이상의 어르신께 인사드리고, 성도간 새해 축복의 인사를 나누었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하였다. 새해 표어 '새 영을 주시리라'를 함께 제창하고,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수되심을 믿고 달려가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원로목사의 덕담과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였다./고현수 기자

성례주일 입교 및 세례식



1월 4일 세례주일 2부예배 시간에 입교·세례식이 있었다.

세례 : 김동선(남, 명륜연건구역), 박금열(여, 동대문구역), 여주미(여, 신혼부부구역), 조예지(여, 고등부), 최종걸(남, 안국평창구역), 허지혜(여, 고등부), 현채원(여, 고등부)

입교 : 김민준(남, 응암역촌구역), 김은진(여, 압구청청담삼성구역)

/ 김종은 기자

2026년 신년 교사 강습회



1월 10일(토) 문화교회에서 오후 12시30분부터 오후 4시40분까지 서울노회 미래세대부가 주최하고 서울노회 교회학교 연합회에 소속된 교회들이 함께하는 '2026년 신년 교사 강습회'가 있었다. 올해 총회 주제는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사 55:7, 엡 4:31~32)'로 류범호 목사(서울노회 미래세대부 부장, 구의교회)는 여는 예배 및 신년 부흥회에서 '일어나 걸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였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몸의 앉은뱅이를 변화시킨 사건을 전하며 우리는 마음의 앉은뱅이, 신앙의 앉은뱅이를 고침받아야함을 전하였다. 이어 '일어나 걸어라(나의 등 뒤에서)' 찬양을 함께 했다. 기도 후에 신입 교사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 후 각 부서별로 찬양 율동을 배우는 시간 및 세미나 시간(중고등부)을 가진 후 부서별로 공과 워크숍 & 청소년 사역(AI 시대 중고등부 반목회와 AI 활용법) 교육 시간이 있은 후 마무리하였다. / 박윤신 기자

교역자 금식 영성수련회



1월 5일(월)부터 7일(수)까지 강화수양관에서 김주용 위임목사와 부목사 6명은 2박 3일 동안 금식하며 한 해의 목양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금식 영성수련회 후 장석 목사가 시무하는 김포 운양교회를 방문해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고 돌아왔다. "1년 교회행사 중 가장 기다려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2박 3일 동안 잠시 일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 한 해의 목양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계대윤 목사

교사헌신예배_ 하나님께서 당신을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1월 11일(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졌다. 유성욱 집사(고등부 부장)의 인도로 찬송(455장)과 찬양에 이어 기도(박윤신 집사·영아부 부장)와 성경봉독(김정은 성도·초등부 교사)이 있었다. 전인철 목사(그저교회)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 126:1-6)'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위해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음을 전하며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 '소명과 사명' 그리고 어린 시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에 대해 강조하였다. 말씀과 기도 후, 각 부서의 부장단 소개 및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이후 주일학교의 모든 교사들이 앞으로 나와 교사 선서를 하고 '하늘 보다 높은 주의 사랑'을 특송하였다. 김주용 위임목사가 소식과 알림을 전한 뒤 다같이 찬송(보라 새 일을)을 한 후 예배를 마무리하였다. / 박윤신 기자

2026 신년특별저녁기도회





유난히 빨리 지나가 버린 2025년을 아쉬워하며 새해맞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달려온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새 영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2026년을 맞이합니다. 성전을 가득 채운 연동의 성도들의 마음에 각자에게 맞게 새롭게 부어 주실 성령을 기대하며 새해 첫발을 디뎠습니다. 지극히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가난한 심령이 되어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1월 2일 금요일 저녁 7시, 본당)를 기다리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새로 주신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연동교회와 나와 오랜 시간을 함께해 준 고마운 연동의 성도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한 해를 누릴 수 있기를 마음에 깊이 담아 봅니다. 기도회 시간은 깊은 찬양과 묵상으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나를 찾아 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느꼈습니다.이어서 스가랴 4장 10절로 김주용 위임목사님을 통하여 시작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회개함으로 시작하라. 둘째, 새 영으로 시작하라. 생각나지 않는 것, 미처 잘못으로 인지하지 못한 것들을 성령님께 맡기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임목사님의 진솔한 간증으로 우리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기쁨도 주셨습니다. 이어진 중보기도 시간은 그 어느 때 보다 뜨겁고 진정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새 영을 입고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연동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이러한 시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신년 저녁 기도회는 영성훈련부(부장 최은주 장로) 주관으로 목양실과 중보기도팀(팀장 원영숙 권사) 바리스타 봉사단 등 많은 분들의 섬김으로 오감이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 심현숙 장로(목양위원회 부위원장)

새가족 소개


김남구, 이종희 성도(3교구 한신1구역)


윤길중, 김경원 성도(1교구 상계중계구역)


이귀례 성도(1교구 명륜연건구역)


임삭훤 성도(1교구 명륜연건구역)


임옥자 성도(4교구 삼선구역)


주광식 성도(2교구 연지구역)


홍승희 성도(1교구 명륜연건구역)

교회 첫 출석 아기 12월 21일(주일) 2부 예배시



오하이, 오하루 아기 (여, 2025년 10월 2일생)
오한빛 목사, 구현영 사모의 자녀
*구자학 장로, 나현숙 권사의 외손녀

"사랑하는 하이, 하루야! 유아세례를 받게 된 기쁜 오늘을 진심으로 축하해.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몸도 쑥쑥 자라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믿음이 단단한 아이들로 성장하길 바란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평생토록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행복한 하이, 하루 자매가 되기를 축복해"

유아세례 12월 25일(목) 성탄절 성탄예배시





김이준(남), 김이서(여) (2025년 10월 20일생)
김 환 목사, 김지영 사모의 자녀

사랑의 하나님! 이준이, 이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깁니다.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날마다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준이와 이서가 살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하이, 오하루 (여, 2025년 10월 2일생)
오한빛 목사, 구현영 사모의 자녀

엄마아빠에게 찾아온 가장 소중한 선물 하이하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예쁜 하하자매가 되기를 기도해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길 소망한단다 우리 딸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해





윤서원 (여, 2025년 5월 8일생)
윤길중 성도, 김경원 성도의 딸

성령께서 늘 함께하셔서 용감하고 담대한 아이가 되게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나 주님의 지혜 안에서 삶을 배워가게 해주세요. 부모와 가정 위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사랑과 믿음으로 아이를 품고 양육하게 하옵소서. 또한 서원이의 매일의 걸음에 주님 말씀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세상 속에서 빛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최서준 (남, 2024년 5월 10일생)
최용석 성도, 이지은 성도의 아들
*이준형 성도, 김수정 집사의 외손자

서준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부모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기도와 말씀, 예배와 사랑으로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가정이 되도록 하옵소서.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 주시고, 지혜와 사랑이 자라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 연동복지재단 (상임이사 최현수 장로)





11,12월 러브릿지"溫(ON)" -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어진 따뜻한 인사"

▶ 11월과 12월에도 러브릿지온은 지역의 독거 어르신 80명과 다문화가정 6가구를 찾아 한 해의 끝을 함께했다. 추워지는 계절에 맞춰 보온 용품과 건강 간식,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 전하며 겨울을 준비하는 마음을 나누었다.

짧은 방문이지만 문 앞에서 나누는 안부 인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는 따뜻한 인사가 되었다. 러브릿지온은 지난 한 해 동안 이어온 이웃과의 만남을 마음에 담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곁을 지키는 나눔을 이어갈 예정이다

▣ 연동어린이집(원장 조주은 집사)

12월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기부"

▶ 지난달 '다시쓰고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는' 나눔장터가 진행되며 아이들은 나눔의 'ㄴ'가치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지역사회에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5·6가동 주민센터를 통해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에 바자회 수익금 '686,000원'을 기부하였고, 바자회 후 남은 기증 물품은 '구세군 희망나눔'을 통해 전부 기부하여 '579,000원'의 가치로 평가받아 총 '1,265,000원'을 전달하였다. 앞으로도 영유아가 일상 속에서 나눔의 가치를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연동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수미)



10월 무대 위에서 만난 클래식, "라흐마니노프 문화체험"

▶ 11월 26일(수) 연동지역아동센터는 문화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아동들의 고품격 문화 향유의 일환으로 '라흐마니노프' 뮤지컬을 관람했다. 평소 음악수업과 악기연습를 통해 들어본 적 있었던 음악가의 곡을 무대위의 연주를 통해 감상하는 시간이었다. 초등 아동들에게는 다소 어둡고 차분해지는 순간이었지만 무대 위에서 열연하는 연기자와 연주자들을 통해 문화 감상의 질을 향상 시키며 선율에 몰입했던 소중한 체험이었다.

신협 현황

(11월 30일 현재) 총 조합원수 : 2,651명(단위:천원)

부채 및 자본금	출 자 금	예탁 및 적금	적 립 금	기타 부채	합 계
	6,004,641	40,728,646	2,529,417	1,657,879	50,920,583
유동 자산	총 대출금	투 자 금	현 금	제 세 금	합 계
	34,179,945	715,862	73,327	15,951,449	50,920,583

(12월 31일 현재) 총 조합원수 : 2,620명(단위:천원)

부채 및 자본금	출 자 금	예탁 및 적금	적 립 금	기타 부채	합 계
	6,018,741	40,204,095	2,572,835	1,013,918	49,809,589
유동 자산	총 대출금	투 자 금	현 금	제 세 금	합 계
	33,029,637	818,869	82,131	15,878,952	49,809,589

목양위원회

■결혼식

- 최예원(최윤용 안수집사, 김민영 권사 딸/ 유아부 지도전도사) 양과 최종수(임영숙 님 아들) 군 - 12월 6일(토)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연합웨딩홀 3층 아가페홀(☎02-708-4111,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②번출구)
- 송영민(송대현 안수집사, 김선미 집사 아들/잠원반포구역) 군과 이지은(엄재섭 성도, 변경미 성도 딸) 양 - 12월 6일(토) 오후 5시 30분 로얄파크컨벤션 1층 파크홀(☎0507-1456-2900,지하철 4, 6호선 삼각지역 ⑫번출구)
- 박준수(박종화 장로, 장진경 권사 아들/성북1구역) 군과 김하정(김남현 성도, 이숙희 성도 딸) 양 - 2026년 1월 10일(토) 오후 5시 30분 더채플 앳 청담 6층 채플홀(☎02-421-1121, 지하철 7호선, 수인분당선 강남구청역 3-1번 출구)

■장례식

- 장승환 성도(장재필 집사 부친, 장은옥 집사 시부, 장서영 성도, 장성현 성도 조부/5,6가주얼리구역) 별세, 11월 23일 백합의 뜰에 모심
- 지규열 장로(지광습 他집사 부친, 조승연 他권사 시부/신내구역) 11월 27일 보성군 봉산리 선산에 모심
- 노강진 은퇴권사(이익성 안수집사 모친, 김은숙 집사 시모, 이호진 성도 조모/고양구역) 별세, 11월 28일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심
- 장길순 장로(장동철 장로 부친, 민병애 권사 시부/개포수서구역) 별세, 12월 17일 예산 추모공원에 모심
- 김성길 님(김현정2권사, 김희정 집사, 김남훈 성도 부친, 남득현 집사 장인, 남다은, 남윤태, 남다혜 성도 외조부/신내구역) 별세, 12월 19일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에 모심
- 성영길 집사(성윤철 집사 부친, 이선아 집사 시부, 성유정, 성현우, 성민우 성도 조부/한신2구역) 별세, 12월 15일 세종시 선영에 모심

*12-1월호(624호) 연동컬러링에 색칠해 사무처 혹은 연못골 이메일(ydpc3000@gmail.com)로 3월 15일(주일)까지 보내주세요. 추첨해 상품권(5000원)을 드립니다. 색칠하기가 돋보인 컬러링은 다음 호에 실립니다. 주일학교 학생은 소속 부서를 꼭 적어주세요.



(이름:　　연락처:　　소속:　　)

10-11월호 '연동컬러링'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5,000원 상품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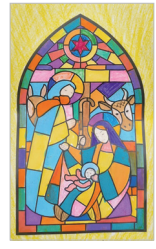
김혜자(백주년) - 2812



나경남(이화4) - 7844



남상옥 효제) - 4380



성열숙(낙산)-0647



여주미(종로5.6가)-5465



오태우(동대문) - 5217



오태이(동대문) - 5217

연 못 골 제 58권 624호

●창간일 1969년 1월 26일

●발행일 2026년 1월 18일

●발행인 김주용 편집인 김성영 지도목사 계대윤 편집장 박현미

총무 진상협 원고접수 ydpc3000@gmail.com

기자 고현수 김종은 남다은 박동진 박윤신 송재호 양진실 이경아 이지원 임재철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우편번호 03128)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7 전화 (02)3676-3000, (02)763-7244

위임목사실 (02)3673-5100 팩시밀리 (02) 745-5905 인터넷 http//www.ydpc.org

●상담실 (02)766-0675 연동복지재단 (02) 3673-0086 강화수양관 (032)932-2929

사진으로 보는 연동

















행복한 연동인

당신이 있어 연동이 행복합니다











새해 아침
당신의 하루 위에 빛이 먼저 머물기를

작은 웃음 하나에도 은혜가 스며들고
걸음마다 평안이 따라오기를

올해도 함께라서 감사하고
사랑으로 다시 시작합니다.